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 기술의 희망 | IBK기술금융 | 📁 취업의 희망 | IBK일자리창출 |
 👴 노후의 희망 | IBK평생설계 | ⚡ 창조희 희망 | IBK문화콘텐츠금융 |
 📱 스마트 금융의 희망 | i-ONE뱅크 |

MBC 라디오 여성시대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35년 만에 맞는 여유 있는 아침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아! 아버지

2015 July **07**

2015. 07



(주) 문화방송



이동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모바일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 모바일에서 바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자산설계부터 지출관리까지 도와주는 금융매니지먼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준법감사인 참여필 제2015-1403호(2015.06.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점이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점(지점)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3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흥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감독 유관 사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okethics@ibk.co.kr)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아! 아버지

10 이달의 편지
35년 만에 맞는 여유 있는 아침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제닉 유현오 대표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82 코너 속 편지
냉동실을 비웁시다! 외

104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즐거운 독서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줄이고 또 줄이기

110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흘려보내고 버리는 연습

112 행복한 책 읽기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7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환
등록번호 라-5413 진행 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승미 칼진기(비매출)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경일악)/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아! 아버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이종숙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하루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길, 그날도 여지없이 아버지가 입원했었던 요양병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섰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전거를 탄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 낡은 자전거에 올라 하얀 모자를 쓰고 구부정한 어깨를 한 그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입에서 절로 나온 한마디 “아버지!”였다.

금세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지만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오래도록 노인의 모습을 눈으로 쫓던 이종숙 씨는 길 한쪽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눈물바람을 지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알려주셨던 분, ‘아! 아버지’는 이제 이종숙 씨 곁에 없다.

여성시대 가족 이종숙 씨의 아버님은 지난 5월 긴 여행을 떠나셨다. 돌아가시기 전 1년 6개월을 요양병원에 머무르셨다. 밝고 명랑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에게 약간의 치매증상과 더불어 허리디스크가 왔다. 두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자유롭게 거동을 못하게 되면서 병원에 모셨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며 말도 몸놀림도 어눌해지셨다.

그래도 하루 두 번, 점심 저녁에 병실을 들르는 막내딸에게 언제





나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던 1년 6개월간 이종숙 씨는 매일 점심, 저녁으로 병원에 들렀다. 11시 50분 점심 식사가 시작될 때면 병실 문을 열어젖혔다. 아버지는 내내 기다리고 계셨던 듯, 늘 고개를 한껏 내밀고 병실 문을 바라보고 계셨다. 딸의 방문에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서 와” 반겨주셨다.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해 손가락을 들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죽을 떠먹여 드렸다. 턱반이를 하고 딸이 떠주는 죽을 맛나게 받아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웠다고 이종숙 씨는 기억한다.

천천히 죽을 떠드리고 입 주변에 흘린 음식물을 닦아드리고,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이며 목이며 손을 닦아드리면 아버지는 더없이 행복해 하셨다.

“아버지, 이따 저녁에 다시 올게.”

얼굴에 뽀뽀를 하며 일터에 가기 위해 인사를 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셨다.

이종숙 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한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직업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 수 있었다. 오후 내내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일을 보고 저녁 5시 50분이면 다시 아버지에게 갔다. 저녁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아버지 귀에다가 “아버지, 내일 올게요. 좋은 꿈꾸시고 내일 될 때까지 별일 없으셔야 해요” 속삭이면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그래, 잘 갔다 와. 내일 또 와. 운전 조심하고” 이가 빠져 어눌해진 목소리와 아쉬운 눈길로 딸을 배웅했다.

그렇게 1년 6개월,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화창한 5월의 한복판에서 아버지는 폐렴으로 50년 꼭 붙잡고 있던 막내딸의 손을 놓으셨다.

이종숙 씨 아버지 이규철 씨는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일을 했다. 결혼을 하고 2남 4녀의 아버지가 되어서도 탄광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9년 문경 은성광업소가 무너졌을 때 3일 동안 갭에 갇혀 있다가 나온 후, 삶의 터전을 바꿨다. 더 이상 남편을 갭도 안으로 보낼 수 없다는 이종숙 씨 어머니의 결단으로 타지로 나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구멍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부는 청소일도 하고, 떡 장사도 나가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란 부업에도 손을 댔다.

아버지의 삶은 검소함과 예의범절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다정다감을 더하면 됐다.

어머니가 어찌다 아이들 혼 좀 내시라 부탁을 하면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자식들을 다 방으로 들어오라 했다. 그리고는 바깥에 있는 어머니에게 들리게 “느들, 잘했어? 못했어? 다들 이리로 와서 회초리 한 대씩 맞자” 하시며 방바닥을 세게 내려치시며 입으로 어



서 아픈 소리를 내라고 하시던 아버지였다. 여섯 자식 키우며 회초리 한번 대지 않은 다감한 아버지였다.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금쪽’이었다.

그 금쪽같은 자식들을 두고 아버지는 향년 82세로 눈을 감으셨다. 이제 아버지는 흔적으로만 남아있다.

장롱 한구석에 놓여있던 가계부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7년 동안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몇 월 며칠, 날짜별로 빠곡히 적혀진 가계부.

‘양파 한망 1,500원, 이발비 3,000원, 엄마 하루 용돈 5,000원, 경로당 고스톱에서 잃은 돈 200원...’

세세하게 적혀진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에 모닥불을 엮은 것처럼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됐다. 외국에 있는 남동생이 매달 보낸 10만 원의 용돈도 매달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쓰레기봉투도 꺾꺾 눌러 봉투가 터지면 테이프를 붙여서 버리셨던 모습도 떠오르고, 영수증 종이도 뒷면까지 썼던 알뜰한 아버지.

자식들에게 손 한번 벌리지 않고 자식들이 드린 용돈도 차곡차곡

저금해 두셨다. 돌아가시기 전 직접 어머니를 부탁한다며 7개의 통장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다. 거기엔 상당히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었다. 고혈압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두셨던 거다.

이중숙 씨는 요즘도 아버지 찾아뵙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 49재 탈상을 앞두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데,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서 나르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나 왔어. 오늘은 날씨가 아주 더워. 아버지 잘 지내지? 많이 보고 싶어” 마치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아버지와 나누고 있다.

막내딸이라고 애지중지했던 아버지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그림기만 하다. 딱 한번만 아버지 손을 잡고 얼굴을 비비며 사랑하다는 말을 해보고 싶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 아버지랑 약속한대로 어머니 잘 돌봐드릴 테니, 거기서도 잘 지내세요.”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져본다.





여성시대가 처음 방송되던 때는 생방송 중 청취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전화였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어떤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스튜디오에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이젠 문자와 미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거 늘었습니다. 여성시대가 시작되는 매일 아침 9시 5분이 되기도 전에 문자와 미니로 아침인사를 먼저 전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시지요.

사시는 지역의 날씨는 물론이고, 교통상황, 동네의 자잘한 소식까지 상세히 전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는 알짜배기 정보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봄이면 구석 구석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올려주시고 여름으로 진입하며 텃밭에서 키운 상추, 오이, 호박,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의 사진을 올려주시고, 가을이면 울긋불긋 물든 나무의 모습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의 모습을 보내주고 계시지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전송해 주시니 스튜디오에 앉아 자연풍광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자라는 아이들 사진이며, 가족모임, 동창모임, 운동회 사진 등 여성시대 가족들의 삶의 무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청취자들이 보내주시는 문자와 미니, 그리고 사진은 여성시대가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여성시대 제작진은 문자 한 통에 담긴 정성과 사진 한 장에 담긴 이야기를 잘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한 글과 사진 보내주심에 지면으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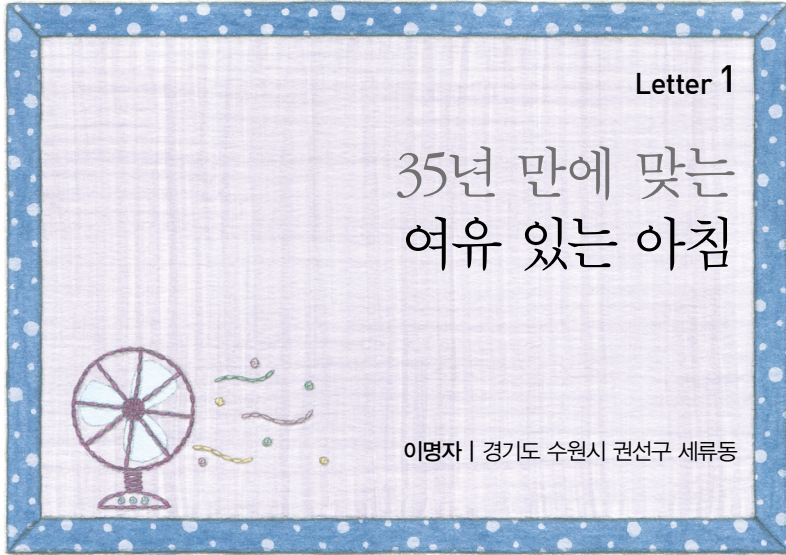
이달의

편지

- 12 35년 만에 맞는 여유 있는 아침
- 15 검정고시 합격,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19 미혼모인 내 딸
- 23 사부인께
- 25 24년 전, 은인을 찾습니다!
- 29 치매 앓으시는 예쁜 우리 장모님
- 34 뽕씨와 작은 배(dinghy)!
- 38 대리운전의 애환
- 40 여성시대 사연을 듣고 신장 기증을 결심
- 44 나나 잘살든 된다
- 47 남편이 병원에 가던 날
- 54 잃어버린 엄마, 잃어버린 오이
- 58 어머니, 빈찬 투정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모 든 게 새롭기만 하다. 늘 마시던 공기마저도 너무나 신선하다. 평소에 무관심했던 새 소리까지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린다. 35년 만에 맞는 나의 여유로운 아침. 내 집인데도 이 아침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다.

결혼한 이듬해부터 콩나물 장사를 시작해 올해로 35년째다. 남편과 나는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콩나물 작업을 했다. 우리 콩나물을 원하는 곳에 배달을 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한다. 일단 분류 작업을 하는데 마트나 재래시장에 나가는 것은 봉지에 나누어 담아 하고, 해장국집이나 찜 전문 식당용은 커다란 용기에 옮겨 담는다. 새벽부터 콩나물 작업을 해서 배달까지 마치고 나면 한나절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집안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제각기 밥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간 흔적



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콩나물 공장을 하며 아이들에게 끼니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늘 미안하다. 힘들었지만 장사가 잘돼 밤낮없이 힘든 줄도 모르고 남편과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런 와중에 삼남매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각자 제 밥벌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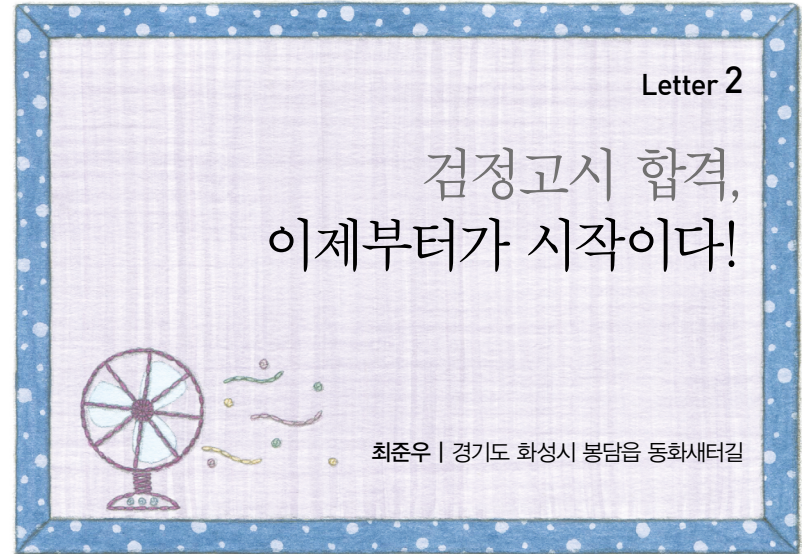
남편과 나는 더 이상의 노동이 힘에 부쳐 35년 동안 하던 콩나물 공장을 접어야 했다. 요 몇 년 사이 경기가 안 좋은 탓에 주문량도 많이 줄었다. 콩나물을 5통씩 쓰던 식당은 3통으로 줄이고 3통을 쓰던 식당은 1통으로 줄었다. 장사가 안 되니 몸과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졌다.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애들이 뭘 듯이 좋아했다.

“엄마, 아빠 이제 손잡고 다니며 맛난 것도 사드시고, 좋은 곳 구경도 다니세요.”

좋아서 난리법석인 두 딸과 엄마 아빠에게 다달이 생활비 드린다는 막내아들의 말이 기특하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편하게 살자” 하며 등을 쓰다듬어 주는 남편 말에 그동안의 일들이 눈앞에 떠올라 마음이 울컥했다.

장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장사에서 손을 놓자마자 남편과 나는 병원에서 찾아야 했다. 남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디스크 수술을 했다. 나 역시 여기저기 고장 난 몸을 돌보느라 병원에 수시로 들락거렸다. 지금도 남편과 나는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허리도 많이 좋아져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나 역시 이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일도 내일의 해가 떠오를 테고, 나는 다시 상큼한 아침을 맞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남편과 나는 함께 걸을 것이다.



저는 올해 18세인 최준우입니다.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성격이 무뎌서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특히 아빠가 일할 때 즐겨 들으시는 여성시대에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대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아침이었다. 엄마와 나는 평소보다 이른 아침밥을 먹고 서둘러 차에 몸을 실었다.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게 엄마는 “오늘은 그냥 경험 삼아 본다 생각해. 기회는 다음에 또 있으니까. 알았지?” 하며 격려해 주셨다.

그날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르던 날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나는 그 길 대신



집에서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었기에 택한 길이었고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때 자신 있었다.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계획대로 착착 순조롭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의욕만 앞섰던 걸까?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1년이란 시간이 지나 있었다. 무기력했고 이미 허송세월을 보냈단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가 되다 보니 연필 잡을 힘조차 없어졌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믿고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집에 오신 아빠가 “우리 아들, 혼자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 건강이 우선이다. 알았지? 아들~” 하시는데,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엄마는 “아유, 그러니까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오후에는 운동도 하고, 대견해요”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드는데 펜스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직장 일로 주말에만 오시는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믿는다면 내 등을 조용히 두들겨주셨고, 엄마도 방황하는 나를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묵묵히 다시 일어서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야외에서 일하느라 검게 그을린 아빠의 얼굴과 온갖 흥터 자국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나 때문에 좋아하는 드라마 한편을 맘 편히 보지 못하신 우리 엄마.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찢릿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래!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나는 다시 덮어뒀던 책을 펼쳐들었고 1년 전처럼 호들갑도 떨지 않았다. 전에는 몇 시간 공부하면 잠이 쑈서서 밖으로 나와 버렸는데 이번엔 엄마가 결제해 주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방에서 나오는

시간을 점점 줄여갔다.

그리고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장으로 가던 날. 그날도 별 말씀 없이 ‘우리 아들, 파이팅!’이란 다정한 눈빛을 전해주시는 엄마! 그 눈빛이 얼마나 힘이 됐던지. 또 점심시간에 먹은 엄마표 도시락은 얼마나 따뜻했던지. 나는 그렇게 시험을 마쳤고,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검정고시 클릭, 시험 합격자 조회, 수험번호 입력, 주민 뒤번호 입력, 그리고... 결과 클릭!

“엄마! 엄마!”

“어, 어, 그래. 어떻게... 괜찮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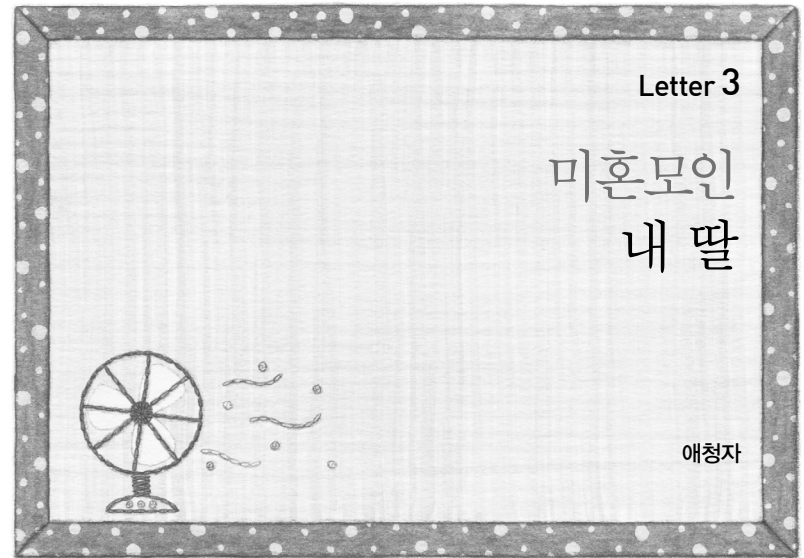
차마 ‘합격했니?’라는 말조차 조심스러워 꺼내지 못하시던 우리 엄마. 나는 20층 아파트 벽을 뚫고 나갈 기세로 펄쩍펄쩍 뛰며 80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합격이란 소식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그제야 나를 꼭 안아주면서 “잘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자만하지 말구 계속 힘내기다” 하며 울먹이셨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아빠한테도 전화를 드렸더니 “어? 합격했다고? 장하다 우리 아들. 아들 덕분에 아빠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일하는데 힘이 막 솟는다. 아들 고마워! 토요일에 일찍 집에 갈게.”

이렇게 마치 사법고시라도 패스한 듯 뿔 듯이 날 듯이 기뻐해주시는 부모님을 뵈니, 지난 1년 방황할 동안 얼마나 맘고생이 크셨을까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에 마음이 울렁인다. 날 믿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나는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노력하는 아들이 될 거다.

“아빠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 아들 최준우 올림



아 이들 어렸을 때 이혼한 저는 혼자 아이 둘을 키워야 했기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야간식당 일을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못했고, 그저 밥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이며 건강하게 그리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잘 자라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제겐 아이들이 느낄 외로움 같은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빠랑 저녁을 차려 먹고 어떤 때는 혼자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딸은 외로움 때문인지 방황을 했고,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를 사귀며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딸을 믿었기에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딸이 임신했으니 퇴학 처리를 하겠다는 하늘이 무너지

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아이 들을 키우며,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돈 버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했던 저였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주길 바랬던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날며칠을 혼자서 울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을 외롭게 만든 이 못난 어미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딸은 아이를 낳고 남자친구와 잘 키우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내 딸이 처한 현실이 너무 가혹하여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벅속의 아기는 벌써 5개월이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알면 아이를 없애자고 할 거 같아 속여 왔다고 하더군요.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어린 학생이 아이를 낳아 버리는 일들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를 버리지 않고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딸을 보며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내 딸만 퇴학 처리하고 딸의 남자친구는 선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해야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겠냐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그쪽 식구들 모시고 약혼식도 했습니다.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2012년 2월에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애기 아빠는 딸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며 애 아빠로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딸은 엄마한테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려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제 앞에서 울더군요. 백일 된 아이를 안고 우는 어린 딸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애 아빠는 학교 끝나면 알바 하러 간다며 나가 여자를 만나고 새벽까지 놀고 들어와 애도 안 보고 늘어지게 잠만 자고 외박도 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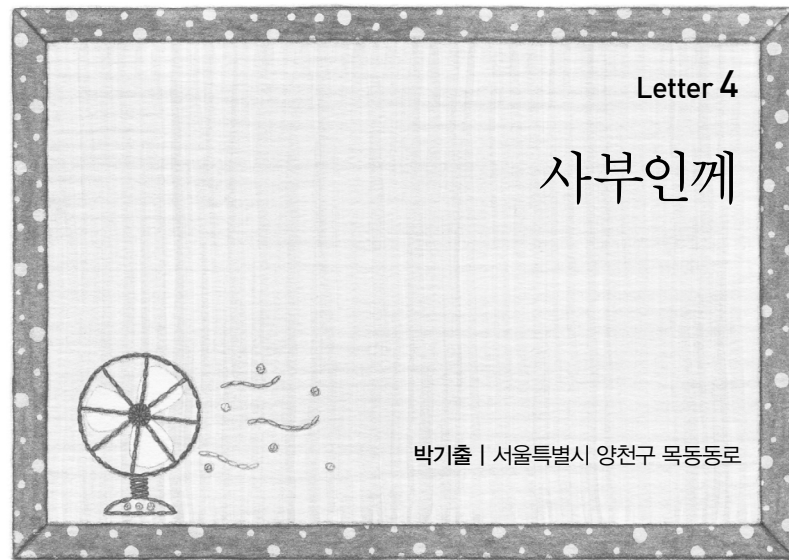
했습니다. 딸은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머리가 아파 잘 먹지도 못하고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겁니다. 먹는 게 부실하니 젖도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당장 애 아빠를 찾아가 사생결단을 내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겨우 참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너무 심한 딸을 홀로 남겨두고 올 수가 없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불쌍한 내 딸! 부모 잘못 만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싶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애기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너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자. 애 아빠가 너와 아기를 버린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해보자.”

딸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퇴근 후 늦은 밤까지 공부해 몇 개의 자격증을 땀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스물두 살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딸이지만 정말 강한 엄마로 씩씩하게 이 세상을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보조금과 적은 월급으로 한 달 한 달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장한 딸에게 이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엄마지만 너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벌써 4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손자 사진 동봉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랍니다. 손자가 딸의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늘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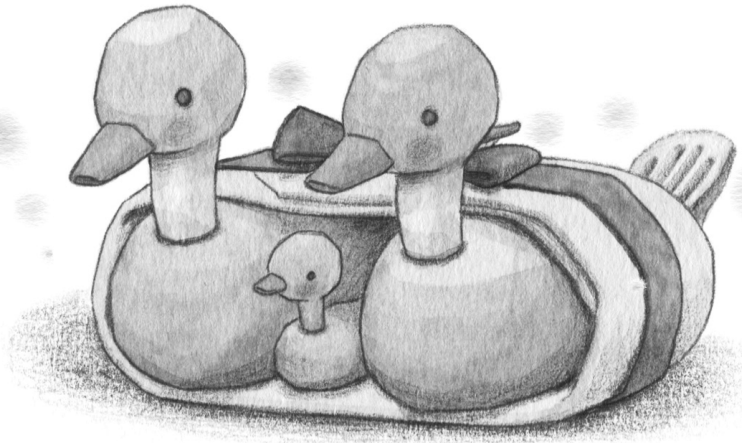


사 부인!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돈어른께서도 안녕하신지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상견례를 한지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이제 며칠 후면 아이들 결혼식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니 좋은 날이 오기는 하네요. 그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록 사돈댁과의 만남을 한 번도 주선하지 못한 것은 사돈이라는 어려운 관계여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부인! 따님을 잘 키워서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새아기는 서로 이해하고, 참고, 노력하며, 좋은 가족이 되어 살겠습니다.

사부인! 혼수품 1호 우리 손주 ‘승연’이면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사부인께 비싼 건 아니라도 좋은 한복 한 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날 나오셨으면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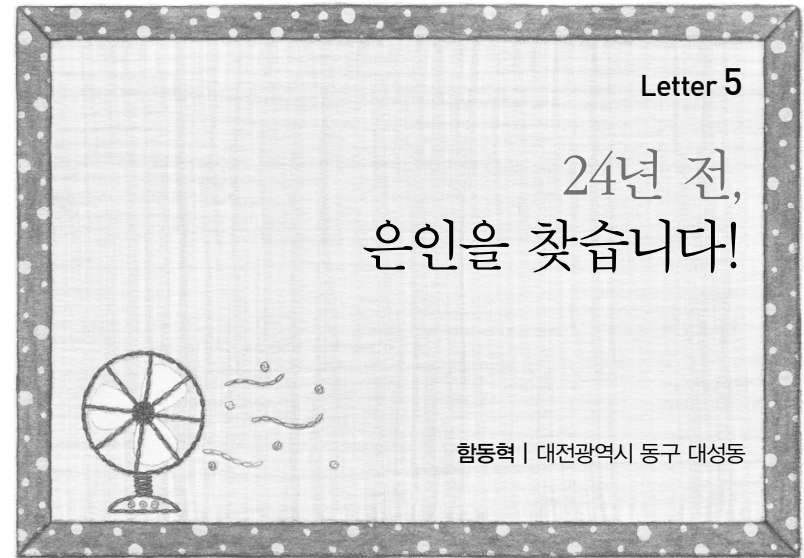
그리고 새아기 편에 이바지 음식을 없애자고 했지만 사돈댁에서는 개혼이라 조금은 섭섭하실 것 같아 아주 조금 보내겠습니다. 약 소합니다.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승연'이 이름까지 잘 지어 주셨는데 저희는 아무런 보답도 못해드렸습니다. 옛날부터 결혼 날 잡아 보내는 '날받이' 음식은 공짜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받아주십시오.

사부인! 승연 애비가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봐주시고 사랑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부인께 양해도 얻지 않고 필을 들어 이렇게 두서없이 몇 자 적으니 이해해주십시오.

사부인!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승연 할머니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여성시대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제 얘기를 하면 혹시 24년 전 만났던 그분, 제 은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저 역시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 무수정체, 무홍체와 같이 온갖 눈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아, 그렇다고 해서 앞을 전혀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시력이 조금 남아 있어서 두꺼운 볼록렌즈 안경에 돋보기라는 확대경을 사용하면 큰 글씨도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얼굴 정도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데, 문경새재가 있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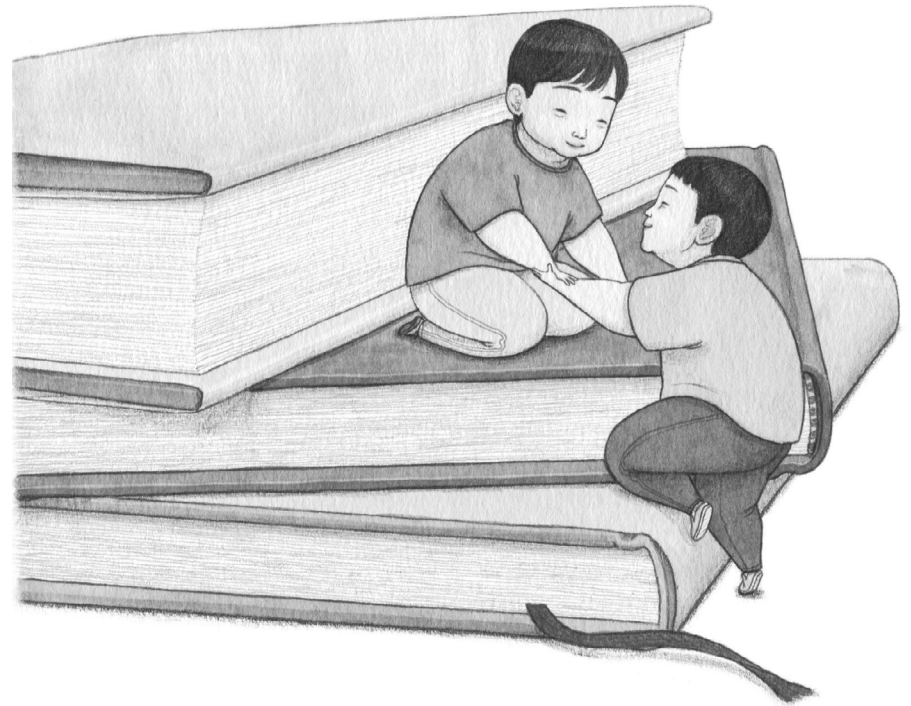
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지만 1970년대, 그것도 시골에 사는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없는 건 물론이고,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도 없었지요.

하지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실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칠판 앞으로 가 칠판에 얼굴을 대고 노트 필기를 하곤 했지요.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혀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 대전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보니, 배우게 되는 건 안마기술. 취업을 하기 위해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 홀로 대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 홀로 대입 준비'라고 하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공부했던 곳은 기숙사에서 유일하게 TV가 있던 관리 아주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사설 학원을 갈 수 없으니 TV 교육방송을 통해 공부해야 했고요. 영어, 국어보다 수학에 흥미가 많아서 '어떻게든 수학 과목에서 점수를 올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무렵, 세계 정말 하늘이 내려준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공부를 도와줄 대학생 자원봉사자 문성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제가 21살 때였는데, 동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요.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쌓아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때마다 찾아와서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전 같으면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냥 넘겼던 문제를 풀릴 때까지 붙잡고 있으니 실력이 차츰 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선생님의 도움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 처음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첫 입시는 낙방!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해인 93년 시험에 도전하여 수학 만점이라는 제 자신도 믿기지 않는 성적을 내며 당당하게 대학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를 안고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하여 지금은 교직생활을 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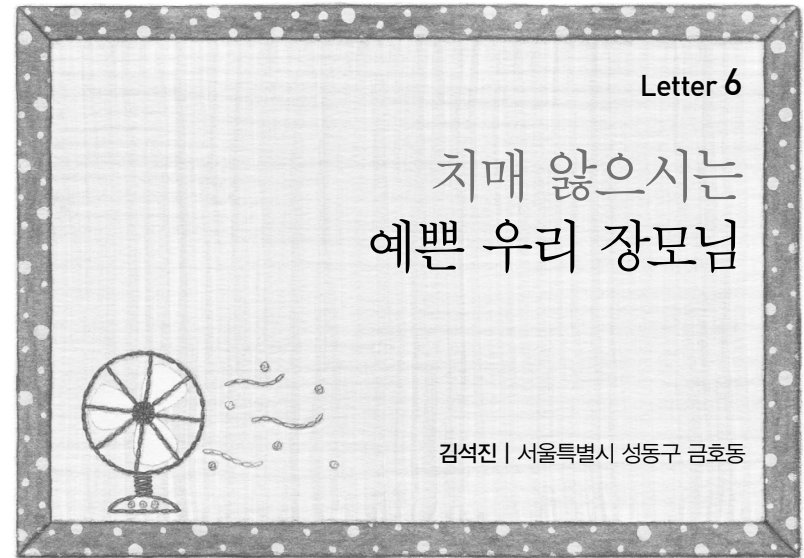
저는 저의 인생역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그분, 저의 은인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게 선생님이자 친구로, 또 세상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해 줬던 그분. 졸업을 하면 물리학과 관련된 연구소에 몸담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버거워서, 고맙단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성함이 문성준입니다. 1991년 카이스트 물리학과 3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는 같은 해 대전에 있는 시각장애인학교에 있었고 대학입학시험 준비로 수학 공부 도움을 받았던 합동혁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도 가고, 지금은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면 하고픈 말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 선생님, 한 번 꼭 뵙고 싶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 그 후 여성시대를 통해 두 분은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매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30년을 함께 살고 있는 올해 연세 여든일곱인 장모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20여 년 앓다가 합병증으로 너무도 일찍 치매라는 몹쓸 병을 앓고 계십니다. 12년이나 중풍으로 누워 계셨던 장인어른을 간병하시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딸을 업고 안 해본 장사가 없으세요. 어머니는 그 힘들었던 세월을 잊고 싶으신지 모든 기억을 다 잃으셨습니다.

17년 전부터 어린 아기보다 더 나약해진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밖으로만 나가려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몇 번은 말리다가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아내 대신 제가 모시고 밖으로 나가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말 배우는 어린 아이처럼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정확치 않은 발음으로 묻고 만져 보십니다. 어머니

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어느 때는 형부, 또는 아저씨, 컨디션이 좋으신 날은 '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집 골목에 꽃집이 있는데, 어머니는 꽃을 보면 “저것은 뭐야? 예쁘기도 하다. 저것 먹어도 되는 거야? 참 맛있겠다” 하며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십니다. 그리고는 언제 꺾어 넣었는지, 집에 돌아오면 주머니 속에서 꽃 몇 송이를 꺼내 집에 있던 딸에게 내미십니다. 주머니 속에 딸려온 꽃은 이미 몽그러져 어머니는 슬퍼하지요. 그러나 아내가 꽃을 받고 “엄마, 이 꽃 어디서 났어? 정말 예쁘다” 하면 금세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옷 가게 앞을 지나다가 맘에 드는 옷이 걸려 있으면 당신도 입고 싶다고 어린 아기처럼 떼를 쓰시죠. 그 옷을 사드리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며칠 동안 입을었다 벗었다 하며 주무실 때도 품에 안고 주무십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장애가 있는 제 아내를 키우며 평생 가슴에 슬픔과 아픔을 묻고 사신 가엾은 분입니다. 당신에게 쓰는 돈은 양말 한 켤레 값도 아까워하셨던 분이 이제는 예쁜 옷을 보고 사달라고 하실 때면, 안쓰러워요. 식사를 먹여 드리면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신이 드시고 싶은 것도 표현하지요. 정신을 놓치지 않으셨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찌다 색다른 음식이 있어 어머니 쪽으로 접시를 밀어드리면 몇 번이고 아이들 쪽으로 다시 밀어내던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가 정신 온전하실 때 좋은 곳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난 것도 많이 사드렸어야 했는데, 사는 것이 힘겹다 보니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 가는 날이라 모시고 갔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하

서서 병원 휠체어에 앉히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오려는데 어머니는 타고 있던 휠체어를 ‘우리 것이니까 가지고 가야 한다’며 놓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 휠체어는 병원 것이고, 우리 것은 집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우리 딸 다리를 놓고 가면 어떻게 해?”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휠체어를 가져왔다가 어머니 주무시는 틈에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다 잃으신 어머니가 어떻게 당신 딸이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것만은 아실까요?

아내는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 등은 여느 아내들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웃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몹쓸 병을 앓으신 뒤부터 아내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저녁에 귀가하면 하루 종일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 간병하느라 지친 아내의 슬픈 얼굴을 봅니다. 아내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아주 강한 여자인데 요즘은 깊은 밤 이불에 얼굴을 묻고 홀로 흐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장모님께 더욱 잘해드리자고요. 아내를 키우며 힘겹게 사신 탓에 몹쓸 병에 걸리셨을 테니까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요즘은 일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여행가요. 돌할아버지 보러” 하며 어머니를 제 옆자리에 모시고 다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어렵네요. 기저귀를 채워드리지만 자주 갈아드려야 하거든요.

어제는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집에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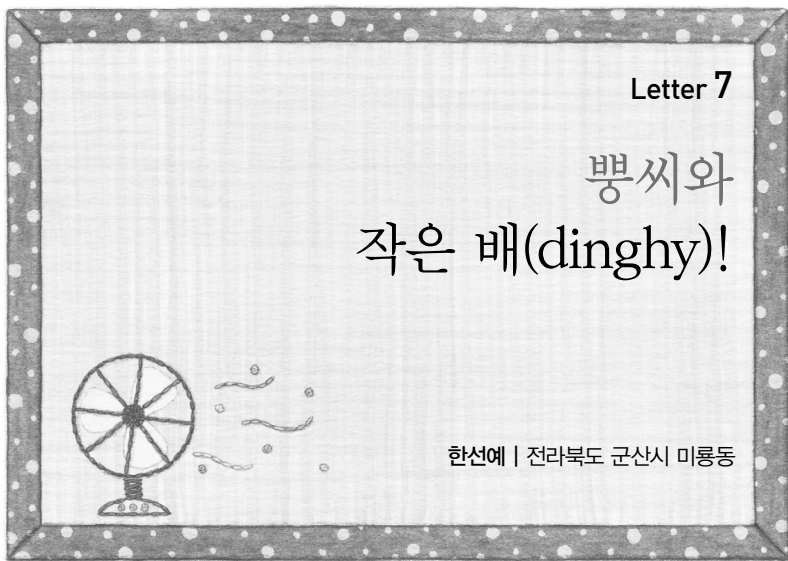


가지 않았는데, 밖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몸과 마음이 지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감춰둔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오빠, 이것 먹어!” 하셨습니다. “엄마,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엄마 먹어” 하자, 어머니 표정이 심통 부리는 어린 아이처럼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초코파이를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리고는 오백 원짜리 동전 열 개를 드리며 “엄마, 돼지 밥 줘요. 돼지가 배가 많이 불러야 우리 제주도 할아버지 보러 여행가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걸지 못하는 딸에게 미안하다며 평생 나들이 한 번 못 가 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여워 17년 전에 차메라는 진단을 받고 서야 어머니 평생 소원이셨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돌허루방을 보시고는 ‘혼자 서 있는 할아버지가 불쌍하다’며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막무가내 때를 쓰셔서 5시간 가까이 그곳에 있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자’고 말씀드려 겨우 어머니를 모 시고 왔습니다. 그때 다시 오자던 약속을 17년이 지난 지금도 못 지 키고 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으셨지만 문득문득 ‘돌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오백 원짜리 동전 열 개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돼지 배가 가득 채워지는 올 가을쯤에는 17년 만에 다시 제주여행을 떠날 겁니다.

어머니도 요즘은 휠체어를 타시니 휠체어 타는 두 여인과 여행 떠 날 행복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너무도 힘겹게 사셨 기에 어머니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 7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려서 일찍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저는 늘 정이 고팠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남편은 선물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는 23년입니다. 남편인 조(Joe)는 1946년생, 저는 1969년생. 미국인인 그는 한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청국장을 주문하는 남편은 생김새만 미국인이지만 생활 모습은 한국인인 저보다 더 한국인 같습니다. 남편은 친절하고 자상하여, 마치 질그릇 같은 저를 보석 다루듯 항상 배려하고 사랑해 주었지요.

남편은 방귀를 잘 끼어서 별명이 '뽕씨'예요. 저는 키가 작아서 요트에 매달린 작은 보트 같다고 '뽕'(작은 배, dinghy)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만 5년을 함께 살다보니, 강팍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군요.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영혼의 동반자로서 손색없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군 생활을 오래한 터라 늘 썩썩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함 남편이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으로 인해 심박조율기를 하고, 그 몇 달 후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여러 차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그 후 만 2년 동안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남편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지팡이와 제 팔에 의지해 걸어야 했어요. 여기저기 부딪치고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자 남편은 외출을 싫어하고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서 삶의 끈을 놓으려는 듯 의욕이 없어지더군요. 저한테 인상 쓰고 화를 낼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같이 화를 내다가 금방 후회하고 반성하기를 여러 차례였습니다.

4월 15일, 병원 외래 차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남편은 기침을 하다가 그만 피를 토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주사액을 맞는데 자꾸 약이 흘러나와 양팔에 번갈아가며 맞았어요. 정맥주사 전문 간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혈관이 콘크리트였다면 지금은 찰흙이라고, 그래서 잘 터진다고 했습니다.

골수이식 후 생기는 숙주 반응이 2년이 지나 지금 눈으로 나타난 거랍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뿐 혈액검사 소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원해 있으면서 남편은 잘 먹고, 잘 자고, 어느 때는 즐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나이롱 환자처럼 보였어요.

입원 3일째, 폐 기능 검사와 X레이 검사를 한 후에는 양쪽 폐에 물이 차서 링거 병으로 두 병 반이나 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얼



마나 숨쉬기가 힘들까요. 평상시 내 눈치 보느라 힘들어도 참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내 자신이 밋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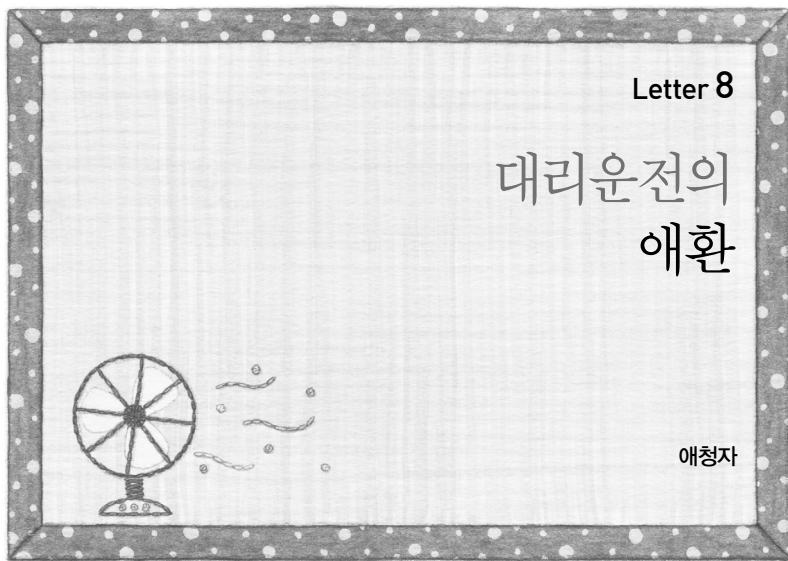
타국에서 오로지 나만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국에 있는 가족도 무척 그리웠을 텐데,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병과 싸우느라 남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연락하고 비행기 왕복 표를 보냈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주 만에 퇴원해서 아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며, 남편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아들에게 보낼 짐을 싸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단순 무식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거든요. 저는 혼자 꽤 오랜 시간을 보낸 터라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명절에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제 딸과 남편 그리고 저예요. 남편은 치료받느라 얼굴이 까맣게 탔는데, 사진관 아저씨가 원래 얼굴처럼 조금 매만져주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딱 5년만 남편이 제 곁에 있게 해 달라고요.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요. 만신창이가 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이끌어준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해 달라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71세 남성으로 대리운전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 과자 값이나 만들어보려고 2002년에 시작한 이 일을 2015년까지 하고 있으니, 세월은 너무나 빠릅니다. 14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일어난 황당무계한 사건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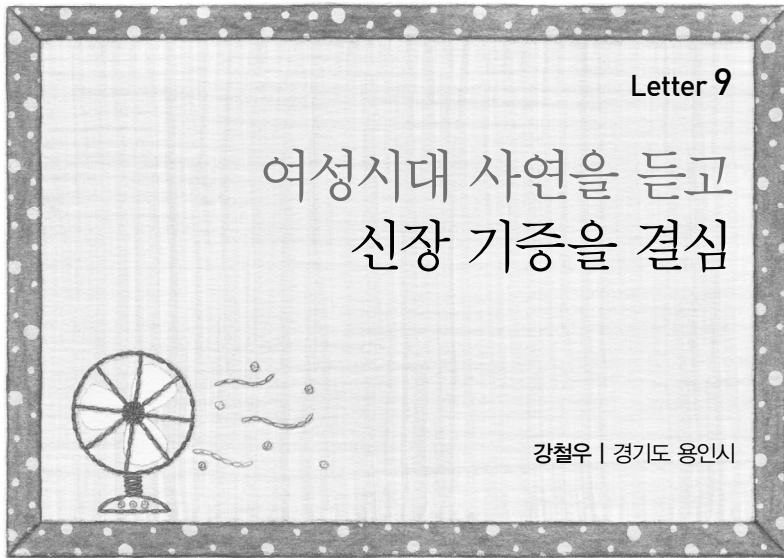
대리기사 일은 주로 휴대폰에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앱)’을 깔아 그 정보에 의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루는 휴대폰을 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월리’에서 ‘남양주’ 가는 콜이 떴습니다. 사실 제가 대기 중인 곳에서 ‘신월리’는 버스 편도 없고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라 망설이고 있는데, 대리운전 상황실에서 “거기까지는 택시로 기본요금 거리예요!”라고 하기에 저는 용감하게 ‘콜’을 잡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내비게이션에 ‘신월리’ 주소를 찍고 가는데 비닐 하우스가 있는 논길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택시에서 내려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면서 의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곤드레만드레 취한 고객이 계속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고, 어쨌든 저는 맡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기에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콜을 수행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을’ 신세인 거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여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다다르니아~ 이게 웬일입니까? 근 한 시간 만에 다다른 곳이 논 한가운데인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상황실에 다시 연락을 해서 재차 출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기사님! 거기가 맞는데요.” 이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를 몇 번이나 뱅뱅 돌다가 사무실에 다섯 번째로 전화를 하니, 글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를 고객이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로 혼동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서울 신월동>과 <남양주 신월리>는 알겠는데 <광주군 신월리>는 금시초문이었고, 또 사무실에서 휴대폰 앱에 ‘남양주’로 주소를 띄우니 저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허허벌판에서 2시간을 허비하고 도심으로 걸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용인에 사는 강철우란 사람으로 62세이며 퇴직공무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전혀 모르는 분에게 신장을 기증하였습니다. 아들의 혼사를 4월 25일에 치렀으니 기증 소식을 접한 지인들께서는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혼사도 잘 치렀으니 인생 후반부를 시작하는 즈음에 오늘날의 저와 저의 가정을 있게 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무언가 보답하고자 신장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10년 전, 장기 기증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사후 각막, 장기, 시신 기증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살아있으며 장기 기증을 하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쯤,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편지 하나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내용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 엄마가 남겨질 어린 두 딸에게 보내는 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죽음 후 사진 속에만 남을 자신을 두 딸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두 딸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에게 동생을 잘 보살피도록 당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를 제일 먼저 찾았고, 엄마가 집에 없으면 공연히 마음이 상해 혼자 투정을 부리고 눈물까지 핑 돌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단체관람으로 보았던 영화 <세븐 얼론, Seven Alone>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은 일곱 명의 아이들이 온갖 고생을 하는 영화로 그 영화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성시대 사연을 들으면서 그동안 막연히 신장 기증을 해야지 했던 생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아이를 둔 여성에게 기증을 해 가정의 화목을 도와주어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던 작년에 실크로도 자전거 여행 1차분을 하고 나머지 2차분인 티벳-파키스탄-이란-터키-그리스-로마까지의 여행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5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9월에 돌아와서 즉시 아내에게 신장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게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소 신앙생활과 봉사 활동에 열심인 아내는 남을 돕는 일이라 애써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불안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하여튼 기증 의사부터 수술까지 길어봤자 3개월 정도라고 들었는

데 이상하게 기증받는 사람과 유전자가 맞지 않거나 수술 날을 잡아 놓고 기증받는 분이 갑자기 건강 이상이 오는 바람에 수술이 불가능해지는 등 거의 8개월의 시간 동안 계속 피 검사를 하며 매칭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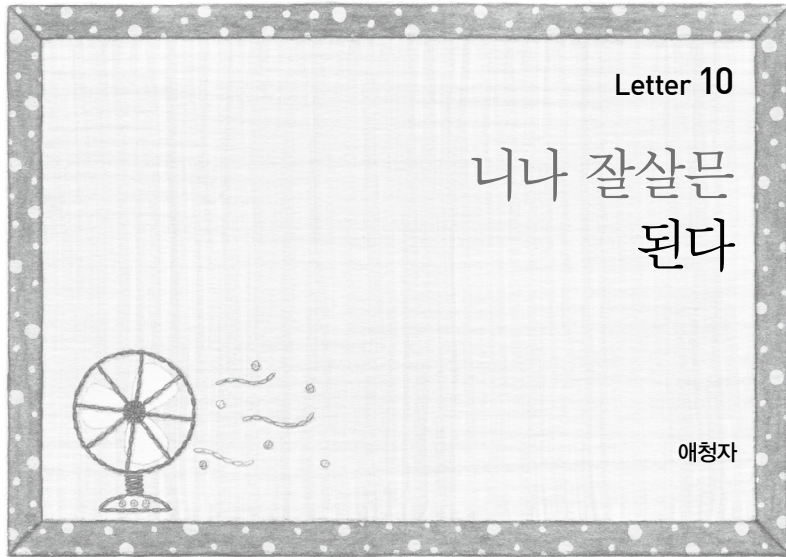
제가 신장 기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지인들 열이면 열 전부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니 나이 환갑에 무슨 그런 일을 해?” 또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네 몸 건강을 유지하며 하지,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해?” 온통 부정적인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기증 수술을 끝낸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배가 좀 당기고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요양을 잘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전과 다름없이 된다는 게 기증 선배들의 확고한 증언입니다.

저의 신장을 받으신 분은 50세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년 간 일주일에 3~4번의 신장투석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간에 고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제 신장을 깨끗하게 잘만 쓰면 앞으로 3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즐거운 인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 12,000km 자전거 종단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건강을 잘 추스르고 자전거 종단에 성공하여 저의 건강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 2015년 5월 6일 화장한 봄날 병실에서 강철우 드림



“니 나 잘살면 된다” 어머니는 늘 제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시험에 합격하고 파출소에 첫 출근했을 때도, 또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았을 때도, 어머니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지만 저희 집엔 안 오셨죠. 괜히 바쁘게 귀찮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나는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니나 잘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진급하고 아이들도 이대로 건강하게 자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친했던 동료의 빚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 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고 급기야 월급이 차압되는 지경에 이르자 ‘서’에서도 곤란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직서를 썼다 버리길



여러 번하다가 저는 결국 스스로 경찰복을 벗고 말았지요.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올 때 시든 나뭇잎 하나가 제 발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사네 못 사네, 사흘돌이 눈물바람이던 아내는 결국 이 혼합의서를 제게 내밀더군요. 출지에 직장 없고, 아내도 없고, 신용 불량자가 된 저는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에는 범인을 검거하던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잡다한 물건도 팔러 다니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고깃집 불판도 닦았습니다. 전에는 “김 형 사님,”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도 저를 “어이, 김씨! 김씨!” 불렀지요. 자존심이 박살나고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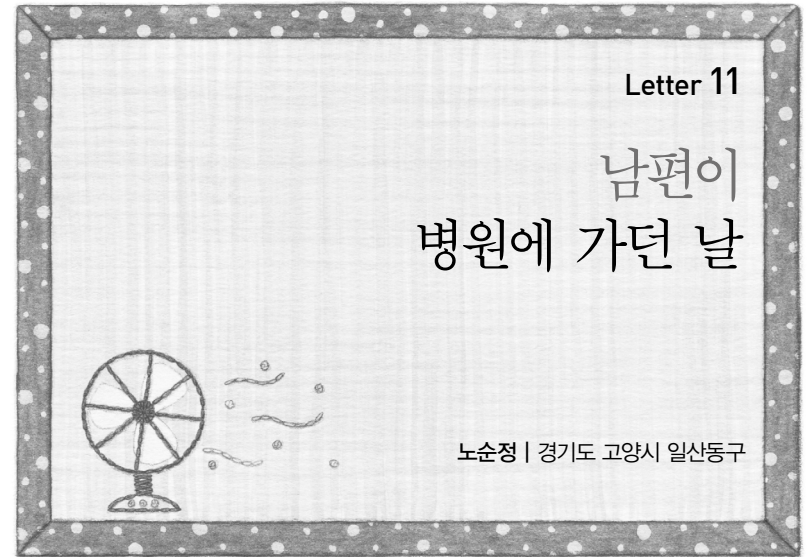
는 얼굴,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며 ‘괜찮다 괜찮다’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 후로 벌써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올해 신(50)이 된 저는 가는 세월 속에 어느덧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고 초등학생이던 아들들은 벌써 20대 건장한 청년이 되어 나라 지키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달 쯤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이었던 경력을 인정받아서 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별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별이의 절반 이상을 저금하며 꿈도 꾸게 되었지요.

저 때문에 바다가 잘 보이던 거제도 고향집을 파셔야 했던 어머니. 어머니, 제가 꼭 그 집을 다시 찾아드릴 겁니다. 또 고기 잡는 배도 한 척 사서 거제도 넓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한가한 꿈도 꾀 보네요. 신용불량자로 내 인생은 끝난 거라고 고개 숙였을 때 묵묵히 절 믿고 기다려주신 어머니.

여성시대에 글을 쓰다 말고 어머니 생각이 나 전화를 드리니, 어머니는 또 “내는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니나 잘살면 된다” 하십니다. 무릎이 쭈신다는 말씀도 허리가 아프단 말씀도 끝까지 하질 않으시네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오늘도 끝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와 훌쩍거리면 어머니가 또 걱정하실 테니 전화를 끊고 눈을 감으니 제 앞에 거제도 바다에 걸터앉은 눈부신 햇살이 보입니다. 그 햇살과 함께, 어머니는 제가 잡아온 물고기로 얼큰한 매운탕을 끓이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시네요. 파사로운 햇살이 마당에도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일흔두 번째 생신을 맞아 친정에 다녀오면서 올해도 역시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결혼 후, 아주 가끔 이번처럼 부모님의 생신일에 신랑과 휴일이 맞으면 다녀오곤 하는데 올해도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 덕분에 물질보다는 마음으로 생신을 축하해드려야만 하는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심기가 불편했다.

이번에도 그나마 초라하지 않게 엄마의 생신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동생 내외가 적지 않은 돈을 찬조해준 덕분이었다. 못난이 우리 신랑은 초저녁에 몇 군데 마트에 들러 판매시한이 임박해 세일하는 양념육을 생각보다 싸게 사왔다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기를 구워드린 것이 전부였다.

뻘한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부모님께서서는 집을 나서며 사위가 손에 쥐어드린 용돈 봉투를 출발하는 차 안으로 던져주며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 고맙네. 몸조심하고 잘살게나” 하며 사양하셨다. 언제쯤 부모님께서 마음 편히 “김 서방, 우리 용돈 좀 주게” 하는 날이 오려는지 모르겠다.

시원스레 뺨 뚫린 고속도로를 힘겹게 달리고 있는 우리 차만큼이나 내 마음이 답답했다. 돌아오는 길, 친절 다녀올 때면 꼭 들리는 간이 휴게소를 그냥 지나치고 있었지만 피곤하고 먹을거리도 차에 있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가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옆자리에서 졸린 눈으로 흘깃 본 남편의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리 좀 굳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역시 올해도 동생에게 언니 몫을 못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을 건넬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자는 척했다.

집에 도착해 엄마가 싸주신 여러 먹을거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좀 전에 방으로 들어간 남편의 나지막한 앓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아이들 저녁 식사 준비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부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기어 나와 화장실로 가더니 구토를 하는 게 아닌가!

“여... 여...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왜 그래?”

순간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구는 창백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손발이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텅 비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너무나 무서웠다. “병... 병... 병원...” 하는 남편의 말에 “잠... 잠시만... 여보... 잠시만 기다려...” 차 열쇠를 들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도대체 손발이 떨리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택시 택시.” 다행히도 바로 택시를 잡아 집 앞에서 기사님의 도움으로 남편을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안에서도 남편의 고통은 참기 힘든 듯 한참동안 이어졌고, 그 신음을 들으며 진료 수속을 밟는데 남편의 이름 석 자 외에는 아

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행히 지갑 속에 있던 나의 신분증을 보며 직원이 주소 등을 옮겨 적어줬고, 수속이 종료됨과 동시에 각종 검사가 이루어졌다.

응급실 문 앞에서 마음 졸이며 왔다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의사선생님의 호출이 있었다. “통증 주사를 맞고 잠시 안정 중에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의심되는데 자세한 건 내일 아침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요로결석이 워낙 통증이 심해서 가끔씩 통증이 극도로 심할 때 구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보다는 많이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못난이, 나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미안하지도 않아? 왜 아프고 그래, 이 바보야! 그렇게 아프면 병원부터 갔어야지. 여보, 빨리 나아.” 나의 혼잣말을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엷은 미소를 지은 채 잠을 잤다.

잠이 든 남편을 응급실에 두고 공중전화기 앞에 섰다. 슬리퍼 차림에 정신없이 나오다보니 휴대폰을 들고 올 정신은 아예 없었다. 동전을 넣고 우선은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부터 해줘야겠다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1번 버튼을 꾀 눌렀다. 그런데 “뚜뚜뚜... 다이얼이 늦었으니...” 이런 소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건다는 게 또 1번을 꾀 누르고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의 저장버튼을 누르듯 1번만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다. 정신을 차려 우리 집에 전화가 했지만 시대와 친절집 번호는 전혀 떠오르지 않아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건 남편의 회사에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어디로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심지어 남편의 가장 가까운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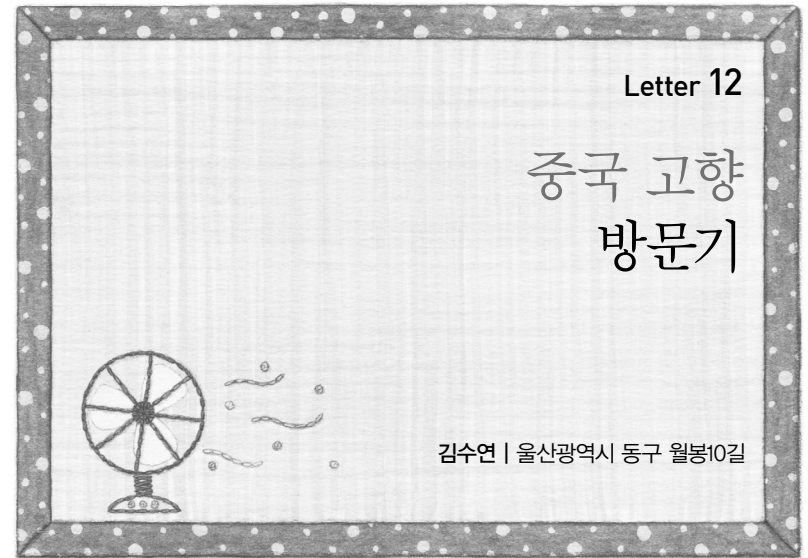
료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과 어느새 결혼 20년 차인데 내가 과연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 수첩과 엄마, 아빠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한 뒤 기다리면서 지나온 시간을 잠시 떠올렸다.

친정에 가 철없이 남편 흉을 봤던 일, 동창회 때 입고 갈 옷과 가방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던 일, 마트 가서 할인시간이 될 때까지 매장을 돌다 다리가 아프다며 궁상스런 삶에 짜증을 냈던 일, 제부와 자주 비교하며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일, 야근하고 왔을 때 가끔 저녁상 차려놓은 남편에게 “맛이 없다, 밥 생각이 없다” 하며 먹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장모님이 시키면 밥을 먹다가도 옛 노래 한두 곡을 부를 줄 아는 남편, 내가 야근할 때면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과 밥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챙겨주는 남편,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아껴 부모님과 나에게 깜짝 선물로 용돈을 주는 남편이다.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훔쳐 주는 아들과 딸을 보며 내가 진정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내가 평소 못한 사람이라 여기며 심술 내고 흥냈던 남편이라는 사실을 뜨겁게 깨닫고 있었다.

다음날 남편은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쇄석술이라는 비수술 초음파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틀 정도 쉬고 출근을 하였으며, 어제는 걱정하셨을 처갓집에 찾아가 배일호 님의 ‘장모님’이라는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기도 했다.

여보, 거뜬하게 일어나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뻐해줘서 고마워. 나도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사랑해!



지난 3월에 저는 딸과 함께 중국 친정집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고향 방문은 3년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쪽을 보니 하늘에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가는 마음은 설렘과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와 어렵게 아이를 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날만 남았다 싶었는데 남편이 갓난아기와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외롭고 우울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니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비행기는 엔지 공항에 도착했고, 미리 나와 계셨던 친정 부모님이 우릴 반겨주셨습니다. 3년 만에 부모님 모습을 뵈니 갑자



기 마음이 쩡하고 눈물부터 앞섰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깊게 세월 따라 생겨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는데 그래도 손녀딸이 예쁘다고 한 손을 크게 벌려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요 몇 년 사이 아버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게 꼭 제 책임 같아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우린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두 시간 넘게 달려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준 고향이 반갑기만 했습니다. 집 주변의 나무들은 세월 따라 가지도 굵어졌고, 바람결에 잔가지들이 너풀너풀 나부끼며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에는 새싹들이 뽕뽕뽕 땅을 뚫고 나와 새봄이 왔다고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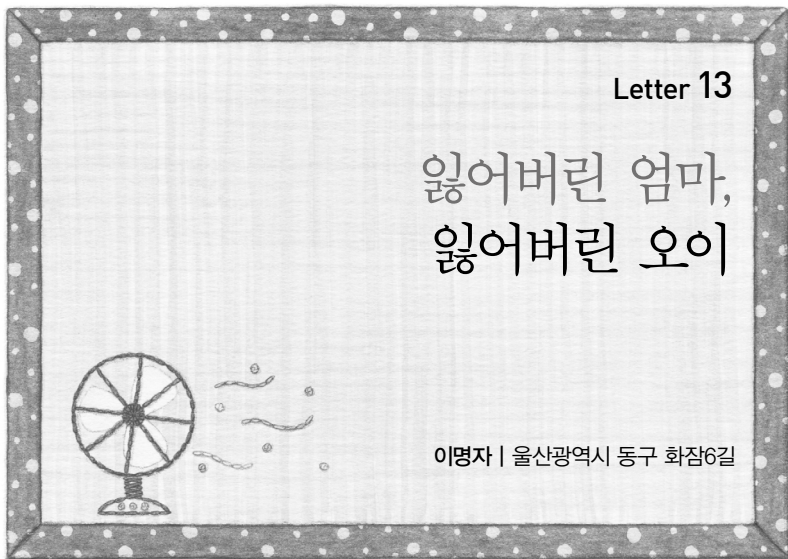
어릴 적 추억들이 하나둘 새삼스럽게 떠오르며 철없이 부모님 속 태워가며 자라던 옛 모습들이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40대의 엄마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맘도 알게 되고 효도란 두 글자도 조금씩 이해가 되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왔다고 부엌에서 마른 나뭇가지로 아궁이에다 불을 피워가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지으셨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정말 구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딸은 아궁이에 불 때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신기해 신기해”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곁에 있으니 마음도 든든해지고 행복도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왜 진작 이런 느낌을 몰랐을까? 왜 전화라도 자주 못했을까? 나 혼자 날 원망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기특한 딸로서 부모님께 꼭 효도하리라 맘먹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 달을 잘 지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 딸과 부모님과 오순도순 부엌에서 밥 짓고 맛있게 먹어가며 친정엄마하고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지낸 일들을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아쉽지만 다시 제 똑순이 딸과 부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새봄의 따스한 가운이 느껴지고 길 양옆으로 아름다운 벚꽃들이 나를 취하게 했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다시 상쾌해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도착하면 마음부터 불안하고 왜 이곳에 내가 왔나 싶어 한동안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나도 모르게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생활 속에서 주변의 좋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새 희망을 가지고 저의 귀엽고 깜찍한 딸과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갖고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요즘 시장에 오이가 나온 것을 보니 어릴 적 일이 생각나서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못해서 어머니가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가지의 행상으로 저희 5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빠져 있다 보니 두 분이 자주 다투셨고,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고 원통할 때는 아버지에게 분풀이할 겸 가장의 역할을 떠맡기기 위해 며칠씩 집을 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엄마가 또 도망을 가셨다는 표현을 쓰곤 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가까이 사시는 이모님 댁에 가서 우리 몰래 장사를 하였고, 며칠간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저희들 학비를 마련해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여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

가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시고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엄마가 “명자야, 오늘 엄마가 아랫마을에서 오이 여섯 접을 받아 시내로 팔러 갈 건데 네가 따라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도 도와 드릴 겸 시내 구경도 하고 싶어서 선뜻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옥양목으로 된 회백색 밀가루 자루에 오이 100개씩을 차곡차곡 담아 여섯 자루, 즉 여섯 접을 입구가 터지지 않게 노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탈 때 차장이 짐이 많다고 투덜거리서 창피했지만 저와 엄마는 오이 여섯 자루를 갖고 무사히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 엄마와 저는 오이 자루를 나무 그늘 밑으로 날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명자야, 엄마가 오이 두 자루를 저 동네로 가서 팔고 올 테니 너는 여기 그늘에 앉아서 오이를 잘 지키고 있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머리에 오이 두 자루를 이어 드렸습니다. 가는 목에 무거운 오이를 이고 저만큼 걸어가는 엄마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 보는 시내 사거리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금방 오이를 다 팔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이 두 자루를 머리에 이고 주택가로 팔러 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금방 오실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그늘 밑에 앉아 구경을 하면서 오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길거리에 신기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스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가 도망갔다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도망을 가신 것은 아닐까?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스런 생각을 하며 기다려도 엄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엄마가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 사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아저씨한테 가서 “저는 〇〇초등학교 5학년 이명자예요. 우리 엄마가 저 보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엄마가 오실 거란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한참 기다렸는데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엄마를 찾아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길을 잃어도 집 주소, 학교 이름을 대면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이를 팔러 간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큰소리로 “엄마, 엄마”를 계속 외쳤습니다. 처음 가는 골목이라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엄마를 외치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 멀리 처음 제가 있었던 나무 그늘 밑에 오이 자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걸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오이 자루에 노끈이 풀어져 있었고 오이가 약 1/3 정도가 없어져 오이 자루가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인 없는 오이 자루를 보고 마구 꺼내간 것입니다. 저는 오이가 없어진 것보다는 엄마를 찾지 못했다는 슬픔과 엄마가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는 생각으로 불안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찰관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엄마가 어디선가 뛰어오셨습니다. 뛰어오자마자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막 우셨습니다. 두 번째 오이를 팔고 와보니 제가 없어 엄마는 저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혹시 제가 제자리에 와 있을까 싶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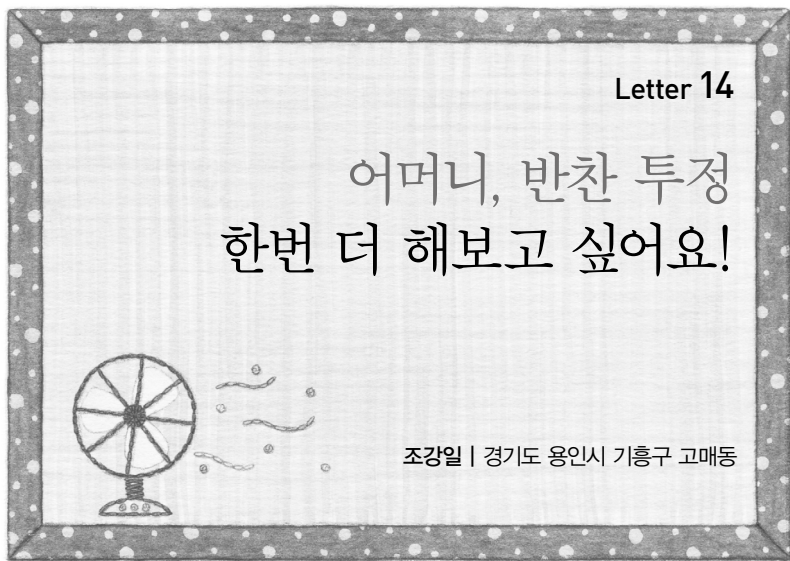
켜안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첫 번째 오이는 금방 팔고 오셨는데 두 번째 오이를 팔러가서는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엄마가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다닌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명자야, 처음 오이는 운이 좋아 어떤 집에서 두 접을 몽땅 사는 바람에 금방 온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오이는 이 골목 저 골목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오이 사세요, 오이 사세요’를 외쳤는데도 금방 팔리지 않아 이렇게 늦은 거란다. 장사는 물건이 팔려야 끝나는 것이라 끝나는 시간을 정할 수 없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늦은 이유를 알게 되었고, 엄마가 세 번째 오이를 팔러 가셨을 때는 걱정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오이를 많이 잃어버려서 엄마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찾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여섯 자루의 오이를 다 팔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명자야, 배고프지? 엄마랑 시장 가서 선짓국 먹고 가자” 하셨습니다. 그날 엄마가 사주신 선짓국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먼 곳으로 시집와서 그곳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또 시장에서 오이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신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엄마, 엄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저의 기둥입니다. 저희 5남매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엄마를 본받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걱정 마시고 하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또 시작이다. 요즘 들어 딸아이는 부쩍 반찬 타령을 한다. 거의 매일 비슷비슷한 반찬에 질렸다는 투정이다.

직장 일에 쫓기는 아내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청국장, 시래깃국, 동치미 등 전통음식을 좋아한다. 아이에겐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다. 그렇다고 아이가 좋아하는 육류를 자주 해줄 수도 없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가급적이면 전통음식과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찬 맛있는 거 뭐?” 아내가 목소리를 높여 반문하면 아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학교 급식은 매일 다른 반찬이 나오는데...” “엄마 바쁜 거 알지? 엄만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 못해.” 아내는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강경하지 않으면 아이가 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을 뒤적이며 모녀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라 미소를 머금는다.

아이와 같은 나이였던 때의 나도 다를 바 없었다. 등교 준비를 하던 나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았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리쌀이 반 이상 섞인 밥과 김치와 멸치볶음뿐이었다. ‘어휴, 또야.’ 당시 잡곡밥을 먹어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매일 도시락 검사를 했다. 하얀 쌀밥만 싸오는 아이들은 선생님께 혼이 나던 시절이었다. 국가에서 혼분식을 장려하던 때였기에 밥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반찬만은 제발 새로운 것을 먹고 싶었다. 일주일째 같은 반찬만 넣어주는 어머니가 야속했다. 반찬을 골고루 넣어달라고 가끔 투정도 부러보았지만 언제나 알았다고만 하시는 거였다. 어머니는 그때 조그만 가게를 하느라 무척 바쁘셨을 때였다.

변함없는 도시락 반찬을 확인한 나는 결국 저항했다. 이른바 금식 투쟁. 자식이 밥을 굶겠다는데 찢찢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랴. 나는 슬그머니 도시락을 집에 둔 채 씩씩거리며 학교로 갔다. 매일 같은 반찬에 질리기도 했지만 창피하기도 했다. 쇠고기 장조림 같은 특별한 반찬이 아니라도 좋았다.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얹어주면 어때서...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밥을 굶기 위해 학교 뒤뜰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보자기에 썬 도시락을 들고 오셨다. “반찬 땀에 일부러 도시락 안 가져갔지?” “몰라!” 나는 괜히 어머니께 심통을 부렸다. 그날 도시락에는 계란 프라이가 두 개나 있었지만 나는 먹어보지 못했다. 앞자리 뒷자리 녀석들이 “우와, 웬일이냐?” 하며 한 젓가락씩 모두 가져가 버린 것이다.

몇 년 전 세상을 뜨신 어머니가 새삼 그림다. 엄마께 반찬투정을 할 수 있는 딸아이가 왜 이렇게 부러울까!



아빠, 사랑해요 ♡

이화정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우리아빠께.

아빠! 어버이날을 맞이해 몇자 끄적여봐요.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저는 이날에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지않은 대우받으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을 버스로 출퇴근하신 고생을 알기에 퇴직한 아빠를 응원하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지만 요즘 젊고,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만약 이대로 아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다면...? 사업을 하기엔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했어요. 물론 아빠가 가만히 계실분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죠.



뭐. 어른들 이야기엔 끼어드는게 예의가 아닐수도 있으니 싶었어요. 근데 전 아빠의 처진 어깨를 보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되긴 커녕 우리집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버릴 때, 이젠 지친다 생각해 둘대로 되어버려라하고 방치한 것 같아요. 아미 엄마, 아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두분 모두 저에게만 털어놓으시니 제가 버거웠나봐요. 전 엄마, 아빠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제가 이젠 어른이되었나보구나 생각했는데, 두분 사이가 틀어질 땐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했고, 그저 이 불안한 분위기가 무서워 어찌할 줄 몰랐던 걸 보면 아직은 애구나. 어리구나. 하고 자책하기도 했어요. 이런 딸이리서 너무나도 죄송해요. 아빠께 큰 힘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참 어리석고 못나서... 죄송해요.

아빠가 새 직장을 구했다고 하셨을 땐 기뻐어요.

아빠가 모욕감을 받았다는 얘길 뒤늦게 듣고 그날

밤에 얼마나 슬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자존심상하고,

비참했을지 상상해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아빠가 이 악물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하잖

아요. 이젠 제가 아빠를 대신해 간절히 기도하려

해요. 물론 그 어떤 결과들은 노력이 99%지만, 1%

기도로 도움이 된다면 전 그 1%에 걸고 기도드릴

려고 해요. 아빠. 기억하기도 싫으시겠지만 그때의

굴욕을 잊지 않으시고 현재의 마음가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힘드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아빠가 집에서

취실때 용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돈이라던데 그것마저

못해드려 죄송해요. 그리고보니 아빠가 취직했는

데 축하파티를 안했네요. 아껴야하니깐 비싼

레스토랑은 못 갈거같고 ㅠㅠ 적당한 선(?) 안에서

제가 쓸게요!! 심 아빠, 그동안 심리적 부담이 크셨

을 텐데 잘 이겨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아빠. 존경하고 사랑해요 ♡

2015년 5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37분

-아빠의 영원한 팬, 희정올림-



어느 노부부의 봄 나들이

박선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운동을 끝내고 지친 몸을 버스에 실었다. 덜컹 덜컹
이른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다.
무슨 고민이 있는듯 미간에 생긴 주름과 긴 한숨 ..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는듯 입가에 미소가 이어지기도
하는 .. 이렇듯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보며 관찰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며 버सान 그분은 지나간다.
한 정류장에서 흰 머리에 근엄정한 모습이 노부부를
보았다. 교통카드를 내미시며 '두사람이요' 할아버님
의 말씀과 함께 할머니께서도 버스에 오르셨다.
걸음걸이도 비슷하진 두분은 비어진 의자를 지나치셨다.



가만히 보니 뒤업푼땀 떨어진 자위를 뒤로 한채 앉으신
웃은 양옆 서로를 바라볼수 있는 자리였다. 주섬주섬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어 할아버님
을 바라보셨고 이내 쳐다보시는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
밀어 전해주셨다. 기적같은 사랑이었다. 말씀은 서로
없으셨지만 서로를 쳐다보시며 지어사는 미소는 보는
사람 또한 행복함을 느끼게 하였다. 몇 정류장이
지나고 할머니 앞을 자리가 비어졌다.

할아버님은 자위를 바꾸시려는 할머니를 강해 방향을
바꾸신다. 부러웠다.



사
라
초

몇 십년을 살아오셨는데도 요즘
젊은 부부들 보다 연인들보다
행복함이 느껴진다는 것이



반 고개를 숙어야 했다.

겨우 9년 시간기간을 합쳐도 12년이다.

하루에 내쉬는 호흡은 세어지지도 않을 만큼 점점 늘어
만 간다. 입학한 큰아이 시간에 맞추어 등 학교,
방과후 수업, 학생지 센터 방문에 내 시간은 흔들려
왔던 바스만과 운동시간이 전복이 되어가고 있다.
집안 일에 식사에 ... 내 몸은 하나인데 할 건 많고
하루라도 아이들 곁에 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운동은 시작 했는데.. 여전히 지친다. 아음이 무어라 몸
또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좀 바꿔
봐라' 라는 남편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 마음
까지 더해져 더.. 더.. 힘들다.

그래서 안가? '왜 살고 있지? 왜 같이 밥 먹지?'



왜 같이 있어야 하나? 별 별 생각이 다 들고 바뀌잖아.
난 요즘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다 무언이 보이 된 행복
이 넘쳐 아름답게 보인 노부부 모습에 난 절로 고개가 숙
여진 것이다. 어느 절로 서로 보며 살아야 단점도 장점으로...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까지 보게 되는 것일까?
말 한마디에 아사슴과 서러움과 분노가 생겨 버리는
난 아직 먼 미래를 본듯 하여 반성에 과분을 보낼듯
하였다.



아직도 집에서 팩하십니까?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 거래고객
(주)제닉 유현오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기미, 주근깨, 주름 예방을 위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온 당신! 지금껏 선크림, 선크림, 쿨토시, 햇빛가리개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갈 차례다. 일명 '하유미 팩'으로 국내 마스크팩 제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제닉의 신제품 '셀더마 1872'를 착용하면 피부 보호는 물론, 보습·진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평소 골프, 라이딩, 등산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긴다는 유현오 대표. 그는 야외활동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레저용 마스크팩 '셀더마 1872 피팅 겔 마스크'를 직접 개발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시력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고글과 레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고글에 서리가 끼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얼굴에 열기가 올라와서 마

스크가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야외 활동을 하면 얼굴에 열기가 올라오는데 마스크팩을 하면 열기도 식힐 수 있고,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돼서 간편합니다."

기존의 마스크팩과는 달리, 에센스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고, 시트 표면으로 에센스가 묻어나지 않아 야외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차 생산



물량이 완판됐을 만큼 반응도 뜨겁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기술력이 뒷받침돼야만 빛을 발하는 법. 1인 기업으로 시작한 ㈜제닉이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마스크팩 회사로 발돋움하는 데는 '수용성 하이드로겔 기술'이 한몫했다.

하이드로겔은 기존에 니코틴 패치, 패치형 피임약, 파스 등 의료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던 제형인데, 유 대표는 기존에 녹지 않던 이 제형을 녹게끔 만들어 특허를 받았다.

“겔이 피부 온도와 반응하면 그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했습니다. 의약품에 사용되던 제형이라 처음에는 저도 상처치료제로 개발하려 했지만, 임상실험·상품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



사업가에게 그럴 만한 자금은 없었다. '수용성 하이드로겔 기술'을 접목시킬 다른 분야를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쳤다.

“호주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 사막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얼굴이 다 탄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찬 물수건을 얼굴에 올려줬는데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 제가 가진 기술을 마스크팩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기존 크림 타입, 부직포 시트 타입에 비해 흡수력이 뛰어났고 피부 자극도 없었다. 유 대표는 그때를 회상하며 의약품에서 미용용품으로 하이드로겔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했다.

제품을 한국에서 처음 출시하지 않은 것도 한 수였다. 그는 ㈜제닉의 첫 판매 지역으로 미국을 선택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미국 문화가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쉽게 받아들여주게 만들었고,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자 되레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러



브콜을 보냈다. 그때부터 국내외 브랜드의 OEM, ODM 생산을 맡아서 했고, '셀더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열고, SNS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모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배우 하유미였다.

“데뷔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의 스캔들도 없었고, 당시 <내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김은수' 역을 맡아 간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유미 씨의 이미지와 좋은 품질의 마스크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더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끊임없는 R&D 투자로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다. ㈜제닉은 세

계 최대 규모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중국 법인을 설립해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 권오태 지점장은 “㈜제닉이 앞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의 마스크팩 시장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결과, ㈜제닉은 연매출 1,000억 원 돌파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수용성 하이드로겔 기술이 가져다 준 성공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과 관점을 지니기 위함이다.

“과거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

작은 변화로 결정되는 당신의 미래!
Small Big카드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세요!

계를 지배한다고 했다면, 저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 1인 특허 운동을 하기도 했고, 특허 전담 직원도 두 명이나 뽑았습니다.”

현재 ㈜제닉이 보유하고 출원 중인 특허는 총 76건. 디자인 등록·출원 건수는 109건에 이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중국 시장에서 효과적

으로 마케팅하는 것과 그동안 걸어온 성공가도를 잊고 꾸준히 앞으로 달려 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주고 싶다는 유현오 대표. 새로운 발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담금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주제닉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 권오태 지점장(왼쪽)과 (주)제닉 유현오 대표(오른쪽)

TIP 유현오 대표의 창업 성공 노하우

1. 제품과 품질에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왔다.
2.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열정을 쏟아부었다.
3.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려 노력했다.

(주)제닉

대표 유현오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5-5 양재동 성경빌딩 (02-579-8265~7)

홈페이지 <http://www.genic21.com>



Small Big카드

- 리워드서비스** [신용] 카드 이용대금의 1.0% [체크] 카드 이용대금의 0.3%
 - 잔돈적립서비스** 건별 이용금액의 1천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 (택) 잔돈
 - * (예시) 1천원 미만 잔돈 적립 옵션 선택 시 → 14,300원 이용 시 결제계좌에서 700원 출금
 - 1만원 미만 잔돈 적립 옵션 선택 시 → 14,300원 이용 시 결제계좌에서 5,700원 출금
 - 적립 가능 금융상품** 적립IRP,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소득공제 장기펀드, IBK 평생펀드자유적금
 - 발급대상** : 개인회원(본인) **발급브랜드 및 연회비** : (신용) UnionPay 1만원, Master 1만 2천원 (체크) UnionPay 면제
- * 서비스 제공조건 및 자세한 상품 내용은 상품 안내장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1351호 (2015. 6.4) 발급번호 CP042 **게시기간** : 2016.5.31

· 이 안내장은 2015.6.4 현재 기준으로,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안은 해당고객센터(☎800-290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청후시 2015.6.30(후) 이상 추후 공지 없이 유지됩니다.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큰 동원금 급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행 은행에서만 노력이든 제휴업체가 경영악화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1회 30%의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대월 개월지 10일 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고, ②개별 고객지침서, 카드대금청구서, 유선, 이메일, 유포스트 문자메시지 중 하나, ③계약상 특수카드 소지 정보 또는 연금저축회계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정보에 따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행생들돈자유적금은 예금보유액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보유 잔고는 본 은행에 있는 계좌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액의 이자를 합하여 연성 '최고 5천만원' 이하, 연한(원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행 거래의 안전에 이르기 위해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IBK기업은행의 문명채(리거)에 해감을 요구하거나 공판정조소위탁회 등을 통하여 방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선번호 ☎1302, IBK기업은행 ☎800-000-0100, IBK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정식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원금상환이 개인이 필요한 경우 소액에 주시기 바랍니다.)☎02-720-7400, e-mail:ibk@ibk.co.kr) - 신용카드 발급은 가계경제에 위헌이 됩니다. - 연세 이자율(최저 연 5.5%~최고 연 24.0%)은 정당한 이율 및 연세에 상응하여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진롤리와 함께
힘한 길마다
살아오신 부모님
곶길을 걸어보세요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양희은·강석우
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2.9(전원)
92.1(삼대봉)



디럭스-K



솔바람

국내제조 고품질화우수제품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고령자용 보행보조용품 전문브랜드

명진Rolly®

T. 02.3789.5355

E. mj_rolly@naver.com

H. www.mjco.kr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탈북여성합창단 '물망초합창단'을 찾아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휘자의 손동작에 따라 높았다 낮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합창 소리가 물살이 되어 흐른다. 수도 없이 듣고 불렀던 노래 '고향의 봄'이 다르게 들린다. 노래에 묻어 있는 감정들이 고스란히 마음에 와서 박힌다.

'물망초합창단'은 올봄 창단된 합창단으로 탈북여성들로 이루어졌다. 두고 온 고향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부르는 노래이기에 더욱 애달프고 아름답다. 노래를 부르며 북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생각했다는 분도 있고, 고향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살구나무를 그리워했다는 분도 있었다.

합창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운 금강산' '비목'으로 유장하게 흘렀다. 다들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려는 듯 정성스럽



기가 그지없다.

사연 많고 상처 많은 이들을 알기에 지휘자 이선주 씨는 온 마음을 다해 합창 지도를 하고 있다.

“자, 자, 여러분! 너무 좋아요. 우리 합창단이 미모 순으로 뽑은 줄 알았는데, 아니 노래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의 술던 고향은~’ 이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하셔야 해요. 아셨죠? 다시 시작합니다.”

지휘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열여섯 소녀들처럼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온다. 모음 ‘이’를 ‘오’로 발음하는 북한식 발음을 고쳐주고, 북한식 창법인 날카로운 고음과 비음이 많은 맑은 목소리를 마음껏 칭찬해준다.

‘물망초합창단’을 창단하게 되기까지 이선주 씨의 노력이 컸다. 함경도가 고향이었던 아버지는 1950년 흥남철수작전이 벌어진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 혈혈단신으로 북에서 내려온 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늘 그리워하며, 그 애틋한 마음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쏟았다.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신문배달 소년들에게 해마다 새 신발을 사주던 아버지였다. 피아노 조율사인 아버지는 음악 봉사도 열심히 다니셨다. 피아노를 조율하며 피아노와 아코디언을 능숙하게



다뤘던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음악을 직접 가르쳤다.

특히 셋째 딸인 선주 씨가 음악에 재능을 보이자 연주회장을 데리고 다니며 음악의 세계를 보여줬다. 아버지는 선주 씨에게 “음악을 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늘 말씀하셨다. 선주 씨는 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서울음대 성악과를 다녔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합창과 기독교음악에 관한 공부를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음악을 통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장애인 합창단, 한부모가족합창단, 실버합창단 등에 지휘를 맡겠다고 선뜻 나섰다. 그리고 우연히 신문에서 탈북여성들의 삶을 알게 된 후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를 찾아가 여성합창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제의를 하게 됐다.

“이제 석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 합창단보다 열의가 넘치는 곳이 여기 물망초합창단입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을 발산하는 데 노래만한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합창이라는 건 서로가 화합을 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일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





리 마음속에 있는 본원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합창단을 이끄는 지휘자의 진심을 아는 단원들도 합창에 열심이다.

“일주일에 두 시간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막혔던 가슴이 뽕뽕리는 것 같아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중국공안들에게 쫓기며 살았던 그 불안했던 날들도 잊을 수 있고, 북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딸을 그리워하다 생긴 우울증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함경북도 김책이 고향인 김숙 씨가 탈북을 한 지는 이제 5년째. 아들 둘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다. 아들 등에 업혀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중국공안에 쫓기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다. 북에 두고 온 딸 생각에 늘 울적했던 마음을 합창을 통해 씻어내고 있다.

“제가 한국에 온지는 8년이 되었어요. 스물세 살에 북에서 나와 조선족인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식당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일, 주방일 5년 만에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 북에

서 온 사람들이 몸 쓰는 일을 하다가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못 먹고 살았던 지라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대요. 지금은 하루 종일 하는 일 말고, 잠깐씩 나가 야채 다듬어 주는 일 정도를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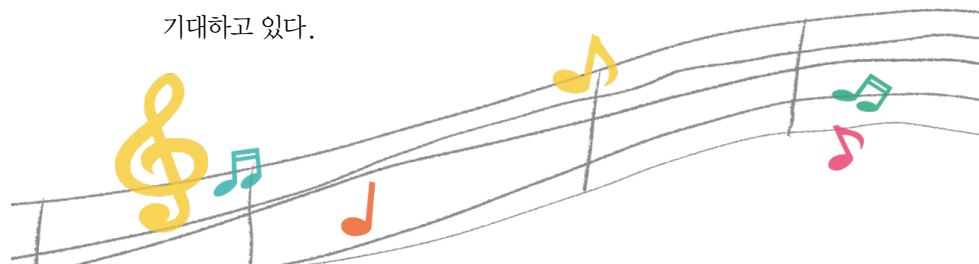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이라는 김지현 씨는 ‘고향의 봄’을 노래하며 고향의 산이 떠올랐다고 한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언니와 동생이 북에 살고 있어 늘 그립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북에서 와서 여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같은 상황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니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마음껏 소리 내어 노래하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요. 노래하는 일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합창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는 한미숙 씨도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한다.

연습실 한쪽에는 대한민국전도가 걸려있다. 각자의 고향을 눈으로 짚으며 그곳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음 그 자체였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기에 더욱더 절절하다.

물망초합창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더 넓은 연습실에서 마음껏 합창연습을 하여 합창경연대회에 나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다. 무대인상을 떨쳐입고 환한 조명 받으며 노래할 날을 지휘자 이선주 씨는 물론이고 단원들 모두 기대하고 있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3 공감사연 공감전화 냉동실을 비웁시다!
 86 장용의 단필총 편하려고 한 거짓말의 불편한 최후
 92 나의 연애시대 태권도와 함께 온 사랑

 공감사연 공감전화

냉동실을 비웁시다!



김일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해마다 봄이 오면 저희 부부는 산으로 들로 나물을 캐러 다닙니다. 봄 냄새가 폴폴 나는 들판에 쪼그려 앉아 냉이며 썩을 캐다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캔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씻고 적당히 데쳐두면 부자가 된 것처럼 참 뿌듯합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더 이상 캔 나물이 없다 싶을 땐 가까운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선 다슬기를 잡지요. 이렇게 자연채집을 좋아하는 부부이다 보니 저희 집 냉동실에 항상 뜬어오고 캐온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와 취미가 같다는 건 제게 참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네요. 바로 그 날그날 뜬어온 제철나물, 이 나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내는 나물을 캐오면 깨끗이 씻어서 일단 데칩니다. 그리고 바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 냉동실에 잘 넣어두지요.



만약 그날 저녁에 썩국을 먹는다 해도 아내는 그날 캔 나물은 일단 냉동을 시킵니다. 대신 오래 전에 얼려둔 나물을 꺼내서 그걸로 썩국을 끓이지요. 대체 왜 그럴까요?

아내 손에 음식을 얻어먹는 처지인지라 항상 궁금한 걸 참고 참았는데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용기를 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 왜 오늘 캔 제철 나물을 얼렸다가 내년에 먹어? 그냥 신선할 때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캔 건 얼리고 대신 예전에 얼린 건 꺼내먹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 아내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했습니다. 그냥 얼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진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얼리는 걸 좋아하고 또 많이 얼리다 보니 최근엔 뭘 얼렸는지, 얼린 게 냉동실 어디쯤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정해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냉동실을 뒤지다가 재료가 나오면 그걸로 그날의 식단이 정해지죠.

예전에야 먹고살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싸고 좋은 게 있을 때마다 냉동실에 쟁여놓았다고 해도 요즘은 그게 아닌데 아내는 냉동실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게 습관이 됐는지 뭐만 생겼다면 무조건 얼리고 봅니다. 쉽진 않겠지만 아내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여보, 최근에 보니까 냉동실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내용물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꼭 안 닫히나 봐. 전기로 때문이라도 냉동실 좀 비우면 안 될까? 부탁드립니다!”

장용의 단 · 필 · 층

편하려고 한 거짓말의 불편한 최후



이홍순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최전방에 있는 무적 태풍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논산훈련소로 가면 거의 전문기술 보직을 맡는 병사들이 많아 군 생활이 조금 편할 수 있다는 믿지 못할 소문들이 많았답니다. 제 고향 친구들이 저만 빼고 전부 경기도나 강원도 훈련소로 입소하면서, 저는 은근히 논산훈련소로 소집 받기를 원했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전문기술 보직병이 되긴 했는데, 중화기라고 해서 비교적 무게가 무겁고 화력이 강한 총을 맡는 기관총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소하자마자 엄청 겁을 주는데 운 없으면 전부 최전방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훈련소에서 저만 유독 예뻐해 주시는 한 조교님이 거기 가면 힘들지만 살 길이 있다고 방법을 조목조목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만 급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조교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이랬습니다. 가자마자 간부나 상관 분들이 뭐 잘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다 잘한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중에 좀 더 편해 보이는 직종들이 있으면 사회에 있을 때 조금 했었다고 무조건 뺨을 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걸려도 일단 그곳으로 배치받으면 다른 곳으로 안 튕기고 그냥 배우며 버틸 수 있다고요.

바로 그때 저의 머리는 암흑 속에 전기가 들어오듯 아주 크고 환한 대형 등이 활짝 켜졌습니다. ‘띠용~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그중에 아마도 유독 편한 것이 머리 깎는 ‘깎사’라는 팀도 주더군요. 그 깎사병은 훈련도 안 뛰고 이발소 지키며 머리만 깎는다는데 완전 맘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어떠한 편한 보직이 있다 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를 한 번도 깎아보지 않았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다시 그 조교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역시 그 조교님은 완벽했습니다. 저를 바로 유명한 깎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신병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미용실에서 근무했다고 저에게 주말에 머리를 깎으라고 강압적인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일명 ‘마루타’. 그래도 완전 초짜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교님이 사회 있을 때 커트 경험이 있는 진짜 미용사를 소집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군대는 신기한 곳이더군요. 진짜 오리지널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몇 명의 마루타를 영구로 만들어 놓으며 손에 바리깡 잡는 법과 가위, 빗 잡는 법 등을 대충 배웠답니다. “앗싸! 이제 나는 깎사다!” 벌써 저는 엘리트 미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훈련이 끝나고 전방에 있는 보충대에서 다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주임 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옷도 화려해 보이고 멋졌습니다. 역시나 그분은 주특기보다 사회에서 뭐 했었냐고 한 명씩 물어보시더군요. ‘왔구나!’ 전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오자 숨도 안 쉬고 토해냈습니다. 사회에서 거의 비달 사순에 준하는 실력의 헤어 디자이너였던 것처럼 멘트를 날려버렸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그 주임 원사님의 눈에 확 들었습니다.

“어, 그래? 잘됐다. 우리 부대에 제대로 된 깡새가 없었는데. 그럼, 자네는 날 따라오게.”

“넵! 태풍!”

저는 굵이굵이 산골짜기를 넘어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까지 왔습니다. 가는 내내 걱정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환한 등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빨강과 파랑이 사선으로 돌아가는 원통, 바로 이발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이발소가 있구나?’ 전 완전 안심했습니다.

도착 후 저녁을 먹자마자 주임 원사님이 그곳 이발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 이발소엔 베테랑 병장이 지키고 있더군요. 인상도 좋아 보여 약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원사님은 의자에 앉으며 실력 한번 보자고 바로 머리를 깎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자대에 가면 뭔가 준비시간이 있고 그곳에서 다시 군대식으로 배우며 새롭게 배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현장 투입이더군요. 얼굴은 달아오르고 몸은 굳어 가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했다간 민간인 하나 없는 이곳 최전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덜덜 떨며 슬금슬금 바리깡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바리깡을 집어 들며 머리를 깎으려 하자, 원사님은 깎

짜 놀라며 그거로 뭐 할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전 커트를 하려고 한 다니까 옆에 병장님이 간부님들은 바리깡으로 바짝 짧게 깎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앗! 그럼 어디를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그동안에 들어와 있던 환한 불빛들이 한순간에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암흑이 바로 저의 군생활의 앞날이었습니다. 별벌 떨며 다시금 가위와 빗을 잡고 막상 깎으려 하니 일반 사병용 스타일로만 배워서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회에 있을 때 제가 깎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며시 옆머리에 가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베테랑 병장님은 조금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저의 몸엔 식은땀이 완전 줄줄 흘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어찌 머리를 깎겠습니까? 그때라도 이실직고하고 수습했어야 했는데, 건방지게 옆머리를 일단 깎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병장님이 “야! 너 머리 깎아 봤나? 순서도 그렇고 휘핑크림도 안 바르고 옆머리에 층이 다 졌잖아?”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별빛이 반짝하였습니다. 모든 건 끝났습니다. 주임 원사님께서 옆머리를 보시고 바로 제 머리통을 그냥 확 날려버리셨습니다.

이성을 잃으신 원사님의 헤어는 원래 깡사병이 마무리하고, 저는 원사님의 머리가 수습되는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욕과 열차려가 있었지만 다들 상상에 맡기고, 그렇게 화가 나신 주임 원사님은 저를 대기시키면서 ‘저걸 어쩌나?’ 고민하셨습니다. 일단 밤새 반성문 열 장 쓰고 자라고 볼펜 두 자루와 종이를 주시더군요. 12시쯤 다시 들어오신 원사님은 이제 그만 자라고 하며 내일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엄청 잘못된 걸 알아 진심을 다해 반성문을 성의 있게 썼습니다. 다음날 원사님은 조금 누그러지신 듯

차분히 말씀하시며 남은 군 생활 열심히 하라고 타이르고 바로 다른 부대로 날려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발 에피소드 1편이고 자대 배치받자마자 2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주특기였던 화기소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여긴 분위기부터가 완전 다르더군요. 일상생활이 욱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디서 들었는지 분대장이 이발 이야기의 머리꼬리는 다 자르고 “너 사회에 있을 때 머리 깎았다고?” 묻더니 대꾸할 틈도 없이 “넌 소대 깎사병이다” 이러는 겁니다. ‘우와! 그럼 여기서?’ 전 여기서도 머리만 깎으면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선임병이 저를 데리고 이발소로 가더니 “너희 둘이 이번에 새로 뽑힌 깎새 기수다” 그러시는 겁니다. 각 소대마다 그냥 자기들끼리 깎아주는 깎사병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엔 다른 소대원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할 거 다하고 일과가 끝나거나 주말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소대원들 머리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뜨아!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똥 밟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점호 전에 기름 바르며 장비들을 반짝반짝 닦아야 하고 머리카락 한 톨도 없이 정비해놔야 합니다. 뭐하나 꼬투리라도 생기면 그날은 완전 죽음. 밤잠은 다 자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참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거기다 전방이라 실탄과 폭탄들을 상시 다루며 지내고 여기저기 산은 온통 지뢰 표시가 붙어 있는 곳이기에 항상 바짝 긴장을 해야 하니 군기가 안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곳에서 또 올 것이 왔습니다. 바로 머리 깎는 날이 온 것입니다. 하필 최고참 병장님께서 대뜸 저보고 머리를 깎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아직 잘 못 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애들은 머리를 너무 못 깎는데 아무래도 네가 제일 나올 것 같으면서 다짜고짜 깎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습니다. 전 정말 못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더 이상 거부하면 불복종으로 혼나도 혼날 상황이었습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전 완전 체념하였습니다. 살 길은 집중, 집중, 집중뿐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무리 병장이라도 일반 사병이니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깎사 선임병은 저랑 동기인 이등병을 옆에다 세우고 “야! 잘 배워라 잉!” 그러며 나가시더군요. 전 조심스럽게 바리깡을 들어 조금씩 깎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머리를 깎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을 때 단점이, 실력이 부족하면 머리를 엄청 뜯기게 되어 머리를 깎다가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저 또한 병장님의 머리를 다 뜯어 가며 깎고 있었습니다. 병장님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시며 슬슬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발을 뺄 수도 없거니와 시작 전에 못 깎는다고 말했던 고백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못 깎아도 왜 진작 말 안했냐고 우기면 그만인지라 이래저래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살 궁리가 필요해 다시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사실 바리깡이란 게 저희도 중학교 때나 이발소에서만 사용한 거지 미용실에선 전동기기로 된 걸 썼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건 사용 안 해봤다고 둘러 대고 최대한 조심하며 간신히 양쪽 옆과 뒤통수를 일차 마무리하였습니다. 병장님은 죽을 뻔했다



면서 이제 가위로 제대로 깎을 거라는 기대감을 살짝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군대 와서 억지로 배워 서로 머리 깎아주는 아마추어들이 깎으면 누가 봐도 짜증나죠. 짬밥 없을 때는 상관 없지만 병장급들은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예를 들자면 삼질 하러 갈 때도 각이 잡힌 바지를 입고 가요. 색은 다 바랜 군복이지만

주름도 같이랍니다.

이제 드디어 소대원들을 전부 다 잡게 만든 정말 무시무시한 사단이 발생합니다. 가위를 들고 시작하려는데 병장님이 자기는 각진 머리가 좋다고 예전 <록키>에 나오는 돌프 룬드그렌이란 영화배우처럼 깎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완전 네모반듯한 머리를 원하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네모 모양이야 쉽지 않겠어?' 그저 대충 반듯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곡선은 힘들지만 네모는 누가 봐도 쉬울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제 사단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옆머리는 대충 직각으로 올렸는데 윗머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를 깎다보면 옆머리가 조금 튀어나오고, 그래서 옆을 조금 치면 위가 안 맞고 그렇게 어렵게 깎다보니 어느덧 네모나게 깎은 듯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긴 앞머리와 네모만 신경 썼지, 다른 부분의 길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정면 앞머리는 길고, 정수리가 있는 윗머리는 0.5센티도 안 돼 보였습니다. 앞에서만 얼핏 보면 네모처럼 보이지만 완전 속알머리 없는 대머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깎으며 자꾸 높이를 맞추다보니 너무 짧아진 것입니다. 그 병장님이 생긴 것도 까만 피부에 원숭이처럼 생겨서 정말 모습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저의 눈에도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웃겨서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어도 웃음이 나오고 웃음을 참으려 하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참을 수 없는 그 상황ですよ. 옆에 있는 동기도 입술 물고 혀를 깨물어 가며 꺾꺾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참혹한 상황은 생각도 못하고 얼굴까

지 빨개져서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병장님 다 꺾었습니다” 겨우 말을 하니, 병장님은 “어, 그래” 하며 안경을 쓰며 “야! 머리가 좀 이상하다? 위애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물어 보셨지만 각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둘러대고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대로 돌아가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장님이 소대로 가자마자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저희가 있는 이발소까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둘 다 킁킁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병장님의 모습은 속알머리 없는 대머리 원숭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장님은 다시금 거울을 보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 그때 때 오른 건 단 두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탈영하든가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든가, 뭔가 극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머릿속의 생각일 뿐 바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소대로 끌려가 뒤통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대머리 원숭이의 웃긴 모습에 다들 웃음을 참느라고 피식거리리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점호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호 대기 상황에서도 계속 킁킁거리리는 소리가 자꾸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점호시간은 정말 무서운 시간 이거든요. 근데 당직사관님이 저희 소대에 들어와서 점호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피식 하고 웃음을 터트리는 겁니다. 당직사관님이 장난하나며 바로 화를 내셨는데 그러다가 저희 병장님을 보시더니 당직사관님도 피식거리며 웃음을 간신히 참고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소

대는 병장님의 상태는 신경도 안 쓰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웃겼지만 얼굴까지 빨개져가며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제 난 어떻게 될까? 여기서 죽는 걸까? 아님 모두가 좋아하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들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가 애 머리 꺾었냐며 찾으시더군요. 제가 별떡 일어섰을 땐 당직사관님은 누가 이등병한테 시키느냐며 고참들을 바로 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웃음기는 사라지고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더 바늘방석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나무라면 털할 텐데 군대란 곳이 밑에 애들이 잘못하면 바로 위를 시작으로 언달아 고참들이 혼나는 시스템이라 소대가 완전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점호에 단체 열차려 받고 취침시간이 되자 저와 동기는 밤새 동안 끌려 나가 한잠도 못 자고 열차려와 꾸중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병장님의 헤어가 궁금하시죠? 병장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끝내 삭발을 선택하여 완전 스님의 모습이 되셨답니다. 지금에 와서도 그 사건의 피해자인 손OO 병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되게 열차려 받은 소대원들 그리고 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한 동기들도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에 와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그때 고생했던 전우들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신 : 그 후 그 병장님이 말년 휴가 다녀오면서 전기 바리깡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나의 연애시대

태권도와 함께 온 사랑



김만철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부부모임에 나가면 신혼부부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해서 눈총도 받고 욕 아닌 욕을 먹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6년 차이니 신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내는 이제 사십대 중반, 저는 그보다 3살이 많으니까 고령부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신혼이라고, 평생 신혼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것은 인터넷공간의 외국 친구 만들기 사이트를 통해서였어요.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일한 지 조금 지난 6년 전 한여름이었습니다. 유료회원인 저는 그 사이트에서 이성 친구를 찾고 또 잘하면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추리닝을 입은 아담하고 푹망푹망한 모습의 동양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간단한 영어로 관심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앨범을 보니 태권도를 가르치는 대만 국적의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외국 여자가 태권도를 하고 작지만 단단한 체구, 무엇보다도 작은 얼굴에 커다란 눈이 다부져 보였습니다. 한동안 답신이 없어서 잊고 지냈는데, 어느날 그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터넷에 자주 접속 못한다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나이답지 않게 동안(?)인 제게 관심이 있었나봅니다. 제자 2명이랑 경기도 용인의 체육관에 태권도를 배우러 왔다는 거지 뭐니까. 한 달 일정으로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견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안 되는 짧은 영어로 만나자고 들이댔죠. “킴 온 베이비. 유 노 지하철! 아이 원 투 시 유, 오케이?” 그녀는 내 콩글리시에 중글리시, 그러니까 중국어 억양이 들어간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이 돈 노 왓?” “아이 러브 유, 아이 미스 유, 앤드 만나… 투모로우.” 그녀는 잠시 뜬눈을 들이다가 “오케이, 유 킴 히어 체육관… 아이 돈 노, 잘 몰라… 지하철.” “몰라요, 잘 몰라”라는 말이 가장 빨리 배운 한국말 같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퇴근 후 물어 물어 용인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그 체육관에 찾아갔습니다. 제자 두 명에게 미트(발차기에 대는 글러브)를 대주고 중국어로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장난삼아 그녀와 겨루기를 했는데 연타로 그녀의 발차기에 맞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조심 조심… 빠샤, 빠샤!” “퍼억, 펍으아악~ 항복!” 원래 유도를 했다가 코치랑 대판 싸우고 중3 때 태권도로 전향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자 2명과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저녁에는 매트를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안스러웠어요. “유 노 아이 해브 빅 하우스. 베리 빅 하우스.” “메이관시(괜찮아요).” 사실 저도 일을 구한 지 얼마 안 돼 방값을



아껴 저축하여 전셋집을 얻으려고 지하 찜질방에서 무려 2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육관 숙박 대만 태권도 6단녀와 찜질방 숙박 노총각의 만남이 시작되었답니다. 제가 퇴근 후 주로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야식을 사주곤 했습니다. 도복 하나 하나 단정히 개는 모습이나 자신의 일에 열심인 그녀의 모습이 참 예뻐요. 우리나라 전통의 태권도를 사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어요. 그녀도 찜질방에서 살고 열심히 저축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으니 저를 계속 만났겠죠?

일요일에 청량리역에서 만나 삼각김밥을 먹으며 춘천에 간 기억도 납니다. 같이 온 고등학생, 중학생인 남자 제자 두 명이 따라붙어서 좀 난처했지만 제자를 챙기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어요. 힘들게 운동한 제자가 휴일에 심심할까봐 같이 온 거니까요. 소양호에서 유람선도 타고 닭갈비집에서 소주도 한잔하고요. 술김에 돌아올 때 전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녀가 눈치를 주었지만 전 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자들 표정이 킁킁대면서 얼레리 폴레리 하더라고요. 중국어로 얼레리 폴레리가 뭔지 아남유? 그래서 선언을 했죠. “아이 러브, 유 러브 샘샘 러브~” 그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안돼... 안돼에...” 하면서도 말이죠.

그녀가 대만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인터넷 메일과 화상채팅을 통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름에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아내랑 열심히 알콩달콩 잘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태권도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가장이 되었으니 비록 대출로 마련한 작은 집에 살지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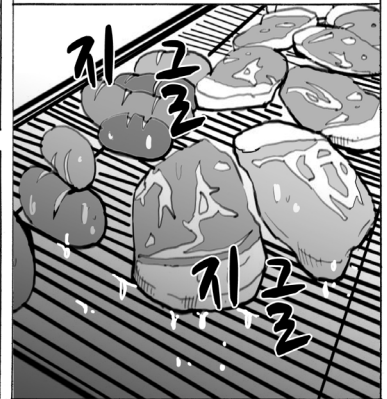
늘어난 레잉션에 눈멀다

그림 | 김곡, 우영미

※〈여성시대〉가족 김은미(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김 주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직원 사택에서 고기 파티를 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 좋아
조금만 더 뜨겁게.
그랄~지!



세상에~
늘어난 러닝셔츠를
입고 이렇게
섹시하게 고기를
굽는 남자가
또 있을까요?

지
꿀
지
꿀



팔 근육을
이용해서
좀 더 강하게
이두박근
삼두박근
우~.



김 주임님
너무 멋지지 않나?

퍼뜩 정신차리라~!
김 주임이 몇 살인 줄 아나?

하지만 저요 제가 좋으면 남이 뭐라든
일단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웬지 모를 용기가 나서.

우리 사귀어요!



몇 살인데?

서른다섯! 너랑 열 살 차이!



두근



그때부터 시작된 사내 비밀 연애

은미 씨
여기 서류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음
어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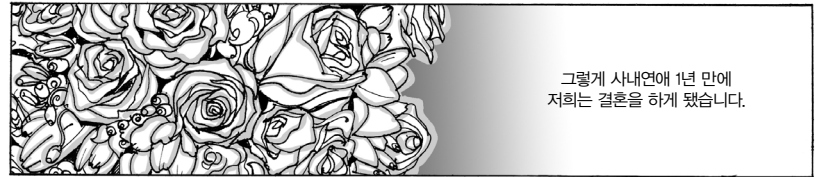
여기...
3분기 실적
적은 데에서...

안 보여요~
요기?



아니,
요기!

어머...



그렇게 사내연애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되어
그 러닝셔츠를 입은 섹시한 모습을
매일 아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멋진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여보아~
나 새 러닝셔츠 좀
사줘~♡



즐거운 독서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OECD 국가 중 성인들의 독서량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에서 책 읽기는 뒷전 중에서도 아주 먼 뒷전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는 편이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국민적인 믿음 덕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내 아이는 독서를 싫어한다면 부모로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게도 많은 질문이 옵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독서를 위한 기초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독서를 위해서는 우선 글자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읽는데 큰 에너지가 들지 않아야 아이는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글을 읽는 것이 어려운 아이는 독서에 재미를 못 붙이고 결국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난독증이 있거나,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약해 한글 해독이 아직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능력 문제인데 독서를 위한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도 있고 배경 지식이 취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글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독서를 못 하다 보니 결국 어휘력이나 문장 이해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이후 독서의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난독증 아이들은 글자로 써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나 말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다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 성향의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는 사람을 만나서 놀아야 재미를 느끼고, 어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어떤 아이는 생각하기보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은 독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독서는 아무래도 내향적이고, 차분하며, 심미적인데 흥미를 느끼는 아이가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기가 너무 어렵고, 자극적인 활동에 탐닉하는 아이라면 독서는 아무래도 지루한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경험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재미주의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재미가 없으면 대충해버리죠. 아이가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또 4학년 무렵 긴 호흡의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독서 경험이 즐겁지 않으면 아이들은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문화는 독서를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재미없지만 미래의 성공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무언가로 여기죠. 그런 태도야말로 독서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아이가 독서에 재미를 느끼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합니다. 재미있는 책,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책을 우선 권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독서보다 재미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은 상상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상상을 위해선 심심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상상하는 능력이 자라나야 책을 읽을 때도 상상을 활용할 수 있고 결국 독서가 더 재미있는 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겐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온갖 미디어들도 아이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내 손으로 조작해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은 쉽게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이런 환경에 어릴 때부터 노출된 아이가 책에서 재미를 느끼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인 난독증이 있다면 난독증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약하다면 딱히 치료방법은 없지만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는 책을 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휘력이나 기초 상식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아이의 교과서를 함께 읽으며 단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체 넘어가지 않게 꼼꼼히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상식을 채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합니다. 읽어주고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이 아이의 지능을 발전시킵니다.

세 번째 성향의 문제라면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향이란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나치게 산만한 아이라면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을 키울수록 구조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구조화란 일정 시간이 되면 끼니를 해결하고,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행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의 해결은 독서할 내용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책을 아이에게 골라줘야 합니다. 하루 빨리 도서관 사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수 없이 부모가 인터넷의 추천 도서 목록을 찾아보고, 거기서 고른 책을 검색해서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릴 때만이라도 미디어 접촉을 피하고,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용납하고 빈 시간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부모부터 책을 읽어야 합니다. 부모도 우선 재미있는 책을 골라보세요. 아이들 책도 좋습니다. 아이들 책은 내용도 따뜻한 경우가 많고 성장 소설이 많아 마음의 위로도 됩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아이가 책을 좀 좋아했으면 바랍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가진 독서로 향하는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장애물이 치워지기 어려운 것이라면 발판을 놓아 아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부터 책을 즐기고, 재미를 느껴보세요. 아이는 분명 독서에 흥미를 가질 것입니다. 독서의 결과 부모의 바람대로 성적이 잘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이는 분명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도 좋은 취미인 독서를 갖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줄이고 또 줄이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6월 내내 내가 즐긴 일은 느긋하게 쉬면서 여행, 요리 프로그램 시청하기, 집에서 개 두 마리와 빈둥거리기, 1시간 운동 후에 가벼운 목욕하기, 게으름 피우기였다. 뉴스도 싫고 밥하기도 귀찮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서랍과 옷 정리였다. 정리하다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서너 시간 후딱 지나간다. 휴대폰이 울리는지 어찌는지도 모른다. 쓰레기통은 옆에 두고 진걸레 마른걸레 놓고 정리해도 눈에 띄게 물건들이 줄어들진 않는다. 이 일을 어찌나 싫다.

작은 서랍 속을 뒤집어 이것저것 읽고 살피면 퍼질러 앉아 추억놀이 하는 건지 도대체 정리의 진도는 잘 안 나간다. 사 놓고 그냥 걸 어둔 옷도 많다. 새 옷 입기가 계면적어 걸어두고 몇 년씩 묵히기가 일쑤이지만 해도 너무 했다. 그래서 TV 출연이 없더라도 챙겨 입기로 했다. 나는 입성에 신경 쓸 때가 있고 전혀 무심할 때도 있어서 옷 입기 나름으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듣는다.

6월은 휴지기. 늘어지게 쉬고 웅크릴 때로 웅크린 뒤에 높이뛰기를 해야지. 새 노래 작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내게 뭐라는지, 양희은 공식 팬페이지, 페이스북에도 수시로 들어가본다. 그리고 점심은 되도록 사먹기로 했다. 집에 들어와 혼자 차려먹기 싫다. 열심히 찾아서 믿을만한 이가 추천하는 맛집을 혼자 기웃거리며 맛 보고 다시는 안 올 집, 가족과 다시 오고픈 집 등을 챙겨놓는다.

시어머니 솜씨가 뛰어나셨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손맛을 볼 기회

가 없었다. 부엌을 맡겨드리에게 넘기신 뒤로는 그냥 놓아버리셨으니까. 지긋지긋하다 하셨다. 지긋지긋이라고 발음할 때 내게도 지긋지긋함이 전해졌다. 일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는 세월을 사셨다고 했다. 애가 여섯에다가 큰집하고 한 울타리에서 아픈 동서 모시고 큰집 조카들까지 거두셨다.

요즈음 내가 그렇다. 그 말뜻을 알겠다. 부엌일 놓고 잊어버리고 싶다. 믿을만한 밥집을 줄줄이 꺾고 맛집 순례에 나서면 어떨까? 일주일 정도 그런 다음엔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냉장고 앞에서 서성이겠지? 도대체 몇 끼나 사 먹을 수 있나를 시험하고도 싶다. 날이 갈수록 국수나 밀가루 음식보다는 우리 식 밥상이 속편하다. 웬만해서는 “그래 이 정도면 돈 내고 밥 사먹는다” 소리가 안 나온다. 화학조미료를 안 쓰는 몇몇 밥집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나, 대놓고 외식을 해보고 싶다.

옷 정리 후 아침 출근 때 내가 입은 옷 색깔을 보고 “와우~” 하며 여성시대 식구들이 감탄해준다. 색이 주는 어떤 힘, 분위기가 있는가 보라며 정신이 번쩍 난다, 기분이 달라진다, 기운을 받는다고 한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소리를 들으니, 괜찮다.

남편은 내게 신발은 신발장에 옷은 옷걸이에 쟁여놓고 무신경하게 맨날 그렇게 챙기지 않으니 못말리겠다 한다. 연예인에게 옷, 신발, 액세서리 정리 등은 일을 폐업해야 가능할까? 이 많은 걸 나 죽으면 누가 가져다 쓸까? 크거나 아담해야 누구라도 줄 터인데... 슬슬 내 물건을 반으로 줄이고 잠시 쉬 후에 다시 그걸 또 반으로 줄여서 60대 후반에는 떠날 듯이 살아야지... 나의 책, 이불, 옷 등등은 매일 쓰레기봉투 하나씩만 내다 버리면 석 달 안에 끝날 일이다. 책부터 시작하자.

흘려보내고
버리는 연습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프로야구가 없었다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싶은 정도로 프로야구 중계 보는 일에 푹 빠져 산다. 야구시즌이 끝나고 '스토브리그'라고 불리는 겨울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될 정도이니 이 정도면 야구 마니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도, 지기도 하는 것이 야구의 승부 세계지만 응원하는 팀이 지는 날에는 아무리 경기 자체를 즐기려 해도 울적해지고 뭔가 기분이 푹 처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 내내 끌려가다가 8, 9회에 역전해서 이겼다면 그날 저녁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까지 그 기분이 연장되어 알 수 없는 기운이 솟는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잘 이기고 있던 게임을 경기 막판에 상대방에게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그 속상함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순간의 화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만약 그때 투수를 교체했더라면...' '만약 그때 구질의 볼을 안 던졌더라면...' 하면서 아쉬움을 어찌질 못한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만약'이라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저 그건 아쉬움에 생각해보게 되는 미련인 것이다. 많은 감독과 코치의 인터뷰를 보면 진 게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게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한다. 남은 게임이 있으니까. 경기에 최선을 다 하되 이미 지나간 경기의 결과에 너무 긴 시간 붙잡혀 있지는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진 경기에는 실수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고 그 실수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크겠지만, 우리들의 인생도 어쩌면 실수의 연속인지 모르겠다. 붙잡혀 가야 할 정도의 큰 실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말실수도 많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기도 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아차! 하기도 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기도 한다.

반대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물론 후회를 하는 동물은 우리 인간만이 아닐까 하는데 그럼에도 후회할 일을 줄이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젊어서는 좌충우돌도 인정되고 시행착오도 그들만의 특권이어서 넘어가기 쉽지만 나이 들어서 그랬다간 어려운 일이 많아진다. 그러나 실수한 후에도 빨리 그 순간을 잊는 게 상책인데 그것은 타고 난 성격이라고들 얘기하나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습관 들이기 나름일 수도 있다.

잊어버리는 습관을 들이자. 과거의 일 중에 화려했던 시절도 잊어버리는 게 현명한 일이고 닳 별게지는 후회의 순간도 빨리 잊을수록 건강에 좋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이 과거의 미련과 후회스러운 일에 매달려 있어 봐야 아무짝에 좋을 것이 없다. 다만 다시는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 결심하면서 스스로를 다짐하긴 해야 한다.

인생은 진행형이다. 생각도 과거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행동도 과거 보전형에서 미래 지향형으로 바뀌어야 스트레스도 적고 깊은 병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지나간 일에 미련 갖지 말자. 실수나 후회할 일이 있으면 그 또한 빨리 흘려보내자. 절대 붙잡을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다만 습관이 안 되어 있을 뿐. 흘려보내고, 버리는 습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이제 그 습관을 들이자.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

일본의 작은 섬 '아마'가 보여준 미래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최근 일본 정부가 환율정책을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의도적인 경기부양과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일본 경제에 새로운 수혈을 시도한 결과, 2015년 현재 일본 대졸 취업자와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이 90%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들린다. 아베노믹스의 역사 되돌리기와 자위대의 국제전쟁 참여를 근간으로 한 헌법 수정 추진 등이 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결국 청년 취업 증가와 경제 살리기 성과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경제, 정치, 외교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취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다.

국가가 유지되고 한국의 문화와 문자가 세계 역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취업이다. 청년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갖고 꿈을 펼치게 해야만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 부모세대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입시와 취업전쟁터에 등 떠밀고,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에 부모세대의 경제력이 계속 후원만 한다면, 부의 대물림과 빈부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한국의 미래는 더욱 어렵게 된다.

서로 다른 특이한 경력의 젊은이들이 대도시 도교를 떠나 일본 중북부의 외딴섬 '아마'에 정착한다. 작은 섬 '아마'는 현재 일본 경제의 축소판이다. 젊고 전문적인 인력 부족과 취업난 및 재정난 등 일본 미래의 모든 사회문제를 담고 있는 이 섬에서 대도시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은 일본의 미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에도 대안을 보여준다.

아미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우선 바뀌었다. 스스로 월급을 부분 반납하고, 그 잉여분을 섬 경제에 투자한다. 최신 냉동기술을 도입하고, 대형생동창고를 설치하여, 섬의 신선한 수산물을 대도시에 납품하기 시작한다.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도시의 젊은 인력이 만나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엔지니어는 그런 공공정책에 기술자문과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웹디자이너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도시 소비자와 섬의 수산물 유통을 연결한다. 시민단체 전문가는 섬의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섬 학교'를 만든다. 섬 특유의 문화와 섬사람들의 생활을 통해 일과 관계, 공동체의 균형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특화한다. 섬에서 배운 것을 외부로 전하는 '섬 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는 일본 시너마현에서 북쪽으로 60킬로미터나 떨어진 외딴 섬에 도시민들을 찾아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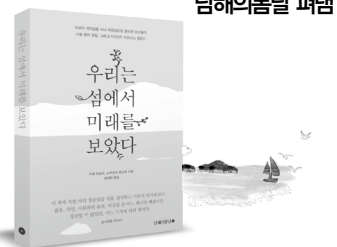
섬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을 살리

는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끊임없이 찾고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고, 섬을 찾아온 외지인들은 그런 섬에서 대안적 삶과 힐링의 시간을 경험한다. 이후, 작은 섬 '아마'는 2004년부터 2011년 8년 사이 310명이 귀촌했고, 고향을 떠났던 173명이 섬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섬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아마'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섬이 되었고, 지역발전모델로서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 정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고 작은 성공에 주목해 숨겨진 내일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지속가능한 사회모델에 희망을 만들게 될 때 한국에도 미래가 있다.

아베 히로시, 노부오가 료스케 지음

남해의봄날 펴냄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일악)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정기 교육자금은 적금으로
 장기 목돈마련은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자녀를 위한 평생플랜 **IBK평생설계장학패키지**

학자금 등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과 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나누어 자동이체 되는 정기적금과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성

IBK평생설계장학적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제외)
- **가입금액** 월 한도 3백만원 (단, 최초 가입금액은 월 한도에서 제외)
- **상품유형** 가계우대정기적금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1년제 (최장 20년) * 최대 19회까지 자동재결제 가능
- **(1년제)금리** 고시이율 연 1.75% + 우대금리 최고 연 0.2%p (2015. 05. 28 현재, 세전)

* 고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우대금리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본 패키지의 구성상품(1, IBK평생설계장학적금, 2, 저축성보험)은 별개의 상품이며 개별가입 가능합니다. 상환 요청시 패키지 구성상품 동시가입의 이점에 대해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5-198호(2015.06.01) 승인번호 SP073 **정기적금(1년제)020505**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범위는 본 은행에 있는 권리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초과하는 내용이 금액별 보호회피 대상이다. * 계약 성립에 관한 사실인 확정: 계약 성립일 또는 IBK-고객센터(1577-0100)를 이용하여 추시기 내이다. * 은행의 운영 관행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문장체(타자)에 해당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통신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장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1202, K기기업은행: 1308-800-0118) * 타기업은행은 금융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금융을 위한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02-759-7600, e-mail: ibknet@ibk.co.kr)